

포스트 호찌민-경주엑스포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2017. 12.

제 출 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포스트 호찌민-경주엑스포 문화교류 활성화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12.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연구책임

대구대학교 교수/관광축제연구소 소장	서철현
---------------------	-----

연구원

대구대학교 외래교수/관광축제연구소 연구위원	황병중
대구대학교 외래교수/관광축제연구소 연구원	김보미

조사보조

대구대학교 관광축제연구소	서현덕
---------------	-----

Contents

1. 과업 개요

1. 과업 배경 및 목적	3
2. 과업 범위	4
3. 과업 수행체계	5
4. 국제 문화교류 관련 이론 고찰	7

2. 여건 분석

1. 호찌민-경주엑스포 행사결과 분석	19
2. 한-베트남 문화교류 실태 분석	35
3. 국내 국제문화교류 현황 분석	46
4. 국내 유사사례 분석	54
5. 한국·베트남인 설문조사 결과 분석	60
6. 관계자 의견수렴 분석	72
7. 종합분석	76

3.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1. 기본전략	79
2. 추진과제 도출	81
3. 분야별 추진사업	83

4. 부록

1. 설문 조사지	111
2. 참고문헌	116

제1장 과업 개요

1. 과업 배경 및 목적
2. 과업 범위
3. 과업 수행체계
4. 국제 문화교류 관련 이론 고찰

1. 과업 배경 및 목적

1.1. 과업 배경

■ 2017호찌민-경주엑스포 행사 성공적으로 종료

- 올해 11월 11일부터 12월 3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열린 호찌민-경주엑스포는 전세계 13개국 15개 팀이 참가하여 다양한 문화를 선보이고 국제교류를 펼치는 기회가 됨
- 행사를 다녀간 호찌민 시민과 국제 관광객들이 약 388만명에 달하고 경상북도 와 호찌민시가 행사를 계기로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등 행사 이후의 양 지역간 교류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됨

■ 경북과 호찌민간 지속적 교류를 위한 방안 강구 필요

- 한국과 베트남이 외교관계를 1992년에 수립한 이후 베트남은 한국을 모델로 한 경제개발을 추구하면서 양국 간에 활발한 경제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역량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문화 영역에서는 K-Pop, 한류 드라마 방송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다른 문화 장르의 활동소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이런 상황 하에서 호찌민-경주엑스포 행사 이후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교류 확대방안을 연구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으며, 양국 간, 양 지역간 교역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1.2 과업 목적 및 방향

- 경제적 교류, 한류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시작된 양국 교류를 문화, 학문, 예술 등 문화적 교류로 확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 특히 호찌민-경주엑스포 개최 이후 호찌민과 경북 및 경주와의 문화교류를 지속하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둠

2. 과업 범위

2.1. 시간, 공간 범위

■ 시간 범위

- 총 과업 기간 : 2017년 11월 ~ 12월
-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2017년 12월

■ 공간 범위

- 경북
- 베트남 호찌민

2.2 내용범위

- 경상북도 및 경주시 대외 위상 제고,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방문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현황, 성과 및 한계 분석
 - 현재 추진방식(관련 조직 및 운영체계), 추진 구도, 관련 예산(기금 등)
 - 문화교류 활동의 유형화, 유형별 활동의 실적 및 성과 평가
- 국가와 지역의 문화교류를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교류활동의 현황, 성과 및 한계 분석
- 양국 간, 양지역 간 문화교류를 통한 지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발전방안 모색(사업 발굴)
 - (사업유형) 목적, 참여주체, 활동내용, 지원방식 등에 따라 경상북도 유관기관의 유사사업의 연계·통합 등 발전방안(신규사업 포함)
 - (조직) 컨트롤타워 및 중간조직 정비, 민간기관 연계 등 추진주체와 파트너의 협력방식 등에 대한 발전방안
 - (제도) 지속적이고 통합적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정비방안

3. 과업 수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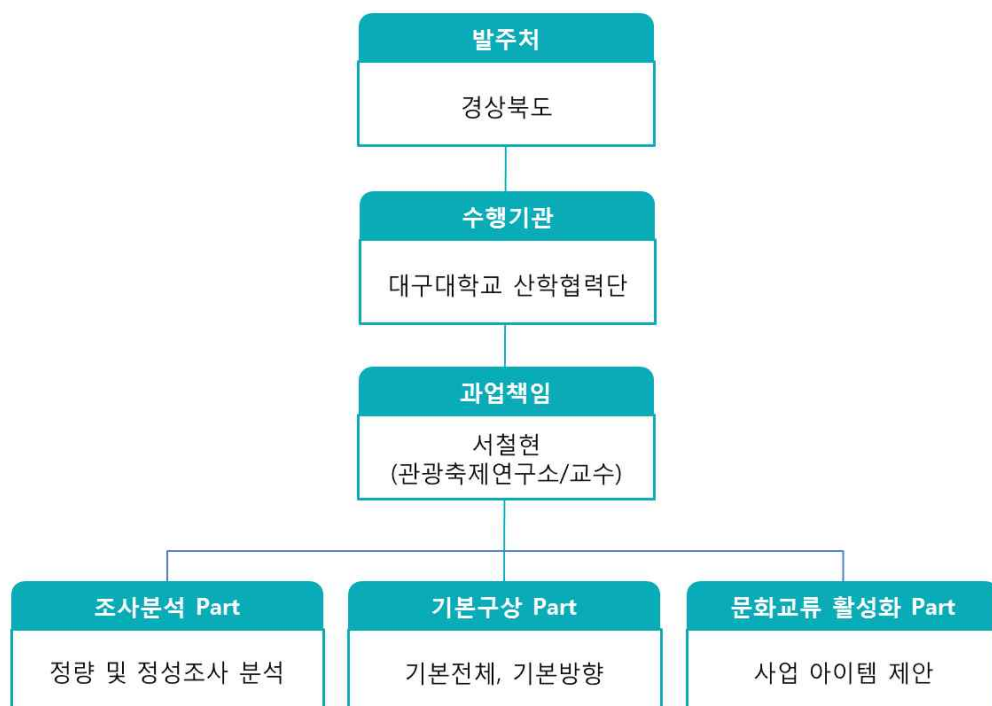
3.1 수행조직

■ 발주기관

- 과업 발주 및 관리감독
- 과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종 지원 실시

■ 수행기관

-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연구 수행
- 각종 조사분석(정량 및 정성조사), 기본구상, 문화교류 활성화 등 Part로 구분하여 과업을 수행



< 과업수행 조직 >

3.2 수행단계

- 크게 5단계로 구분하여 과업을 실행함
- 1단계 : 과업의 목적과 평가방법 등 전체적인 과업의 방향을 설정
- 2단계 : 2017호찌민-경주엑스포 행사 내용 및 성과 분석, 행사장을 방문한 베트남 및 한국인, 행사 관계자 대상 의견조사, 문화교류와 관련한 선행연구, 국내외 사례 분석 등 정성조사 및 정량조사 실시
- 3단계 :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양국, 양지역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제 및 기본방향 구상
- 4단계 : 호찌민과 경북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 아이템 도출 및 제시
- 5단계 : 도출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종보고서 작성



4. 국제 문화교류 관련 이론 고찰

4.1 국제교류 증가의 원인

■ 글로벌화 현상

- '90년대 냉전체제 종식이후 국제적으로는 글로벌(globalization)화가 진행되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지방화(localization)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글로컬(glocalization)화 현상이 확산됨
 - 독일 베를린 장벽 철거 : 1989년
 - 구 소련 붕괴 : 1991년
 - 한국 지방자치제 실시 :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실시)
- 세계는 국가단위 보다는 하나의 시장으로 인식되는 세계화 현상과 맞물려 현지의 문화나 소비자의 기호 등의 차이를 반영하는 경영방식이 강화되면서 지역의 풍토를 존중하게 됨
- 세계적인 동시에 지역적이며, 세계성은 지역성에 의해 수정되고 변경된다는 글로컬(glocal)의 개념은 문화영역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문화교류는 세계화 추세에 걸맞게 보편적인 문화 또는 문화상품의 생산과 전파가 아닌 문화권역별 특성에 따른 교류로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적 관점에서 문화 또는 문화상품은 역사적 정통성 또는 전래의 방식만을 고집하기보다 지역적이고 세계적으로 시대에 맞춰 창의적이고 작품성 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임(박치환 외, 2009)
- 국제문화교류도 자국의 문화와 타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융합된 문화를 전파하는 등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추세로 '쌍방향적 글로컬라이제이션(Glacialization)'을 지향하며 강대국의 일방적 세계화보다는 여러 나라의 로컬문화가 상호영향을 미치는 글로벌화 방식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스마트화 현상

- 정보화 사회를 일컫는 스마트화(smartization) 현상은 디지털 혁명의 결정체로 디지털 시스템에 기능적인 편리함이 가미된 시대적 현상을 말함

- 2000년대 이후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스마트 기기와 소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전자적 자원을 손쉽게 생산·공유 및 활용하는 시대에 접어듦
-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소셜미디어와, 의료·교육·기술 등 각 분야별로 스마트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현상은 문화예술분야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분야를 탄생시켰고 문화교류의 방식에도 변화를 주도함
- 특히 IT기술의 발달로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과학기술의 디지털과 정신문화가 만나 새로운 디지털 문화콘텐츠라는 융합(convergence)영역이 탄생하였고 문화교류의 방식에서도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 현상으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벗어난 개인 간의 문화교류가 매우 용이해짐
- 문화예술 측면에서 스마트 시대는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문화예술의 해외진출 비용을 감소시켰으며, 급속한 대중문화의 확산으로 문화교류의 새로운 방식이 됨
- 몇 년 전 K-Pop 대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단기간에 전 세계 10억명 이상의 유저들에게 급속하게 전파되었고, 구글 아트프로젝트(Google Art Project)는 2011년 2월 세계 유수의 미술관 소장품을 온라인으로 감상하는 서비스를 개시하여 세계 151개 미술관의 3만 2천점을 소개하는 성과를 거둠
- 유튜브나 온라인 매체들의 등장은 각종 문화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쌍방향적 소통과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있음
- 특히 오늘날 온라인 커뮤니티가 발달하면서 전세계가 하나의 동일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웃과 지역(장소)의 공간적 범위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음

■ 수평적 네트워크화 현상

- 디지털과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개인 간의 직접 교류가 확대되고, 지방정부와 민간주체들의 역량이 국가에 못지않게 높아지면서 보다 수평적인 네트워크화(horizontal network)가 진행됨
- 수직적 권위주의에서 수평적 네트워크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

및 비즈니스 분야뿐만 아니라 정부 및 공공조직에서도 수평적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디지털화·스마트화로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대중미디어가 단일하고 일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달리 수평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주체들의 자유로운 소통방식이 가능해짐
- 자유로운 소통방식이 가능해진 수평적 네트워크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문화의 흐름은 일방적 흐름이 아닌 쌍방향적 교류로 전환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강력한 주체로 작용하였던 과거의 문화교류가 점차 지방정부, 기업과 개인이 그 주체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게 됨
- 수평적 네트워크화는 문화예술교류의 주체가 과거 지식인 또는 외교가, 행정가 등 특권층이 주도하는 형태에서 문화예술계 전체로 전환되고, 문화예술교류의 대상 또한 지식인 또는 외교대상에서 일반국민 모두로 확대됨
- 앞으로 개인과 개인(P2P), 개인과 집단(P2G) 그리고 집단 간(G2G)에도 문화교류가 가능해지면서 국제문화교류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 다문화 현상

- 글로벌화 이후 지역 간 왕래가 빈번해지고 국가 간 교류가 확대되면서 복합적인 문화현상이 확대되고 있음
- 18세기 이전부터 다문화(multi-culture)를 경험한 미주유럽, 중남미의 국가들과 달리 경제 변화가 빠르고 노동인구의 감소 문제를 겪는 국가들의 경우 다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상당기간 경험하게 됨
- 따라서 배타적 문화상대주의 입장에서 상호 호혜적, 다원주의적 관점에서의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있음

■ 자매도시 등 지역 간 국제교류 체결 증가

- 국제교류의 대표적인 유형 중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Sisterhood Relationship)이 증가하고 있음
- 자매결연이란 “한 지방정부가 다른 지방정부에 대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고, 행정·경제·문화·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교류협력의 약속을 맺는 것"을 말함(우양호·이정석, 2010)



< 경상북도 본청의 해외 자매체결 현황 (2017년 9월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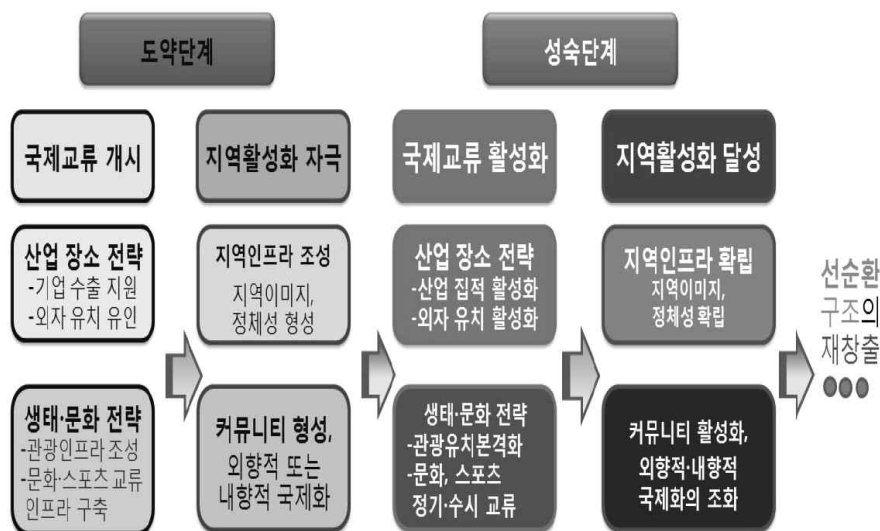
4.2 국제교류의 목적과 지역 활성화

- 일반적으로 국제교류의 목적으로는 국제협력 인식 제고, 행정 선진화 및 역량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협력 등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국제교류협력의 목적은 항상 동일한 것이 아니며, 시대적 배경과 국가나 지역이 처한 여건, 논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정석 외, 2009)
-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경쟁이 가속화하는 시대에는 국제교류를 통한 사람과 물자의 교류 확대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증가하고 있음(김판석, 2000; 강형기, 2003; 김부찬, 2007)
- 이정석(2009)은 국가나 지역의 국제교류 단계에 따른 지역 활성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음
- 즉, 도약단계 하에서 지역은 국제교류를 개시하게 되는데, 중소기업의 수출신장·외자 유치를 통해 지역의 산업 부문을 육성하고, 관광·문화·스포츠 교류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생태·문화 부문 육성에 힘쓰게 되는데, 국제교류 개시는 지역 활성화를 자극하여 우선 지역 내 산업·문화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 이미지와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고 봄

➡ 국제교류의 목적

구분	주요 내용
국제협력 인식제고	· 국제흐름과 국제기준에 대한 이해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 개혁 · 직원과 주민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 및 국제교류협력 공감대 형성 · 해외연수·견학·시찰 등을 통한 견문 확장 및 개방적 세계관 도모 등
행정 선진화 및 역량 제고	· 발전된 선진행정과 선진제도(법과 제도 등)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쌍방향 상호협력 체제 구축 · 지방·도시의 국제화 기반 조성 및 내부 수용능력과 국제 역량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경제와 지역산업을 자극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외국인·외국기업·외국기관의 국내 활동 지원 · 우수기술·해외자본·우수인재의 유치 등
공동 협력	· 국제적 공동관심사(환경·보건·안전 등) 협의 및 상호지원 협력 · 자치 관련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적 연대 활동 증대 · 국가 외교의 보완 및 지방차원 지역외교 증진 등
기타	· 지방인재와 지방교육연구기관의 육성지원 · 외국문화 이해와 자국문화 자긍심 고취 · 지역 정치·행정과 사회·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국제정보의 수집 등

자료 : 이정석 외(2009)



자료 : 이정석(2009)

< 단계별 국제교류와 지역 활성화의 관계 >

- 또한 도약단계에서는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절감하긴 하지만 공무원과 일부 관련 주민에게 한정되며, 외향적·내향적 국제화가 아직 상호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다고 보았으나 국제교류에 대한 지역의 역량 증가는 국제교류를 성숙단계로 이끌어주게 된다고 파악함

- 산업이 집적·활성화되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안정적이고 본격적인 외자유치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문화·스포츠 면에서는 국제간 교류 행사가 정기적으로 진행되어 일반인들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으며, 이 때 조성된 인프라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게 된다고 판단함
- 성숙단계에서는 국제교류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며, 외향적·내향적 국제화가 상호 조화를 이루게 된다고 봄

4.3 문화교류의 개념 및 의의

■ 문화교류의 개념

- 문화란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양식이나 상징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이 주어진 환경을 변화시키고 본능을 적절히 조절하여 만들어낸 생활양식과 그에 따른 산물을 모두 문화라 일컬음
 - 인류학에서는 사회전반의 기술, 예술, 관습, 양식 등 보다 광범위한 것들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문화를 정의하기도 함
- 문화는 음악, 미술, 문학, 연극, 영화와 같은 예술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하고(R. Williams, 1983), 상품으로서 대중문화, 유행가와 같은 것들을 소비함으로써 문화를 접하기도 함(Berger, Pub, 1971)
- 일반적으로 문화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된다는 후천성으로 인간은 공통된 행동과 생활양식을 가지게 되며 서로 고유한 문화를 공유하게 됨
- 이러한 문화는 서로 발달하고 상호작용하며 진보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세대 문화를 현대로 가져와서 발전시키게 됨
- 이를 축척성이라 하며, 축척된 문화를 다양하게 발전하고 나아가게 하는 성향을 변동성 또는 다양성이라 함
- 일반적으로 교류(交流)라 함은 여러 분야에서 문화나 사상 따위의 성과나 경험 등을 나라나 지역, 개인 간에 서로 주고받는 것을 의미함
- 문화교류는 문화분야에서 여러 외국과의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교류를 말함

■ 문화교류 유형

- 일반적으로 문화교류는 국제교류에 속하는 하나의 하위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 1998년 행자부에 따르면 국제교류는 크게 경제교류·문화교류·체육교류·인적교류·상징사업·기타교류 등으로 나누고 있는데, 문화교류의 유형에 현대 많이 행해지고 있는 대중음악 공연 등이 빠지는 등 다소 좁게 설정하고 있음

➡ 행자부의 국제교류 유형 (1998년)

구분	주요 내용
인적교류	· 공무원 교환 (파견) 근무 · 사찰 및 조사단 · 청소년 교류
문화교류	· 민속축제 참관 · 사진 및 그림 전시전 · 서적 기증 · 바둑 및 서예 교류전 · 국악연주 · 민속품 전시회 · 합창단, 시도립 가무단 및 민속단 공연
체육교류	· 스포츠 교류단 상호파견 · 프로팀 경기 상호 교류 · 각종 친선경기 등
상징사업	· 공원 조성 · 한국 정자 건립 · 거리 명명식 · 자매도시 전시관 개관 · 명예 시민증 수여
경제교류	· 경제교류 협정 체결 · 지역기업 진출 및 합작투자 · 전용공단 조성, 무역센터 건립 · 상품전시관 및 특산품 상설전시관 건립 · 시장개척단 파견 · 산업 시찰 · 상공회의소간 자매결연 · 중소기업연합회 교류 · 투자 설명회 · 관광전 개최 · 기술이전 협의 · 직항로 개설 (항공기, 여객선)
기타교류	· 명예 박사학위 수여 · 의료 봉사활동 (초청 진료, 무료 진료 등) · 재난시 상호원조 (성금) · 동식물 교환 (동물원, 식물원)

자료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1999), 이정석 외(2009)

- 국제교류의 유형을 구분하는 일은 일정한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는데, 교류 분야별로 행정교류, 인적교류, 문화예술교류, 관광교류, 청소년교류, 스포츠교류, 기술·학술교류, 경제교류, 민간단체교류, 상징사업, 기타 등으로 분류하거나, 교류 주체와 성질에 따라 행정(회의·파견), 민간(문화·스포츠·학생·기술·학술회의·체육 등), 경제(경제·관광홍보·우호홍보·농업 등) 교류로 분류(양기호, 2004)하기도 함
- 일반적으로 교류사업의 형태는 경제교류, 문화교류, 체육교류, 인적교류, 상징사업, 기타교류 등으로 나눌 수 있음(박금식, 2005).
 - 경제교류 : 경제교류협정체결, 투자설명회, 관광전 개최, 직항로 개설 등
 - 문화교류 : 민속축제 참가, 합창단 등 공연, 사진전 개최, 문학교류, 민속품 전시회 등
 - 체육교류 : 스포츠 교류단 파견, 친선 스포츠 경기 등
 - 인적교류 : 교환근무, 시찰 및 조사단, 학생교류 등
 - 상징사업 : 공원 조성, 거리 명명식, 자매도시전시관 개관, 명예시민증 수여 등
 - 기타교류 : 명예박사학위 수여, 위난 시 원조, 의료봉사활동, 동물교환 등

➡ 연구자들의 국제교류의 유형

구분	분류기준	주요 내용
양기호 (2004)	교류 내용 기준	· 행정교류 · 인적교류 · 문화예술교류 · 관광교류 · 청소년교류 · 스포츠교류 · 기술·학술교류 · 경제교류 · 민간단체교류 · 상징사업 · 기타
	교류 주체와 성질	· 행정교류 · 민간교류 · 경제교류
박금식 (2005)	교류사업 형태	· 경제교류 · 문화교류 · 체육교류 · 상징사업 · 기타

자료 : 선행연구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 문화교류는 외교, 홍보, 협력과 유사한 개념으로 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대상이나 범위, 주체 측면에서 다양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 문화교류의 유사 용어

용어	공통점	차이점
문화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활동 · 문화콘텐츠 창조·활용 · 국가의 직간접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계 전문 기획 · 쌍방향 예술가와 시민 주체, 쌍방향 소통
문화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계 전문 기획 · 문화홍보 전문가 주체 · 일방적, 추후 쌍방향 교류
문화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 전문가 기획 · 문화계가 협조
문화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계 기획 · 일방적, 추후 쌍방향 교류

자료: 정정숙(2012).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4 문화교류와 지역 활성화의 관계

- 지역 활성화는 1960년대 이후 일본 내에서 지역발전 혹은 지역발전과 관련된 정책수립의 기조로서 널리 활용되기 시작됨(이정석, 2009)
- 지역 활성화는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 정부, 기업, 단체, 주민들의 활동을 종합하는 것을 말함(김성곤, 2000)
- 그러나 지역 활성화는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중앙집권 시대에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나 외부의 공장, 기간산업이 지역에 유치됨으로써 지역 활성을 이루는 외생적 활성화에 관심이 모아졌다면, 지방화 시대에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의 유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모색하는 내적 활성화가 중요시 되고 있음(김정현, 2004)
- 결국, 앞으로 지역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외부요인도 중요하지만, 지역 차원의 잠재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함
- 이는 타 지역과 구별되는 자기 지역만의 독특한 개성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의 자연·인문자원을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
- 최근 국내 자치단체들은 개성을 살리면서도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방법으로 지역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은 국가 안에 머물지 않고 국경을 넘어 글로벌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교류(문화교류 포함)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태가 되고 있음
- 실제로 국제문화교류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성과를 낸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 쓰시마와 같이 지역축제를 국제교류의 소재로써 활성화하고, 그 성과를 지역 활성화에 연계하고자 하는 자치단체가 생겨나고 있음(신영근, 2011)
- 우리나라에서는 부산광역시가 조선통신사 행렬행사를 모티브로 일본의 중소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일본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처럼 국제교류가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선행연구와 국내외 사례들을 참고해 볼 때, 경상북도의 경우 국가간, 지역간 문화교류도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음
- 특히 2017년 베트남에서 개최된 호찌민-경주엑스포 행사를 계기로 경상북도의 국제문화교류 지평을 넓히는 동시에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 특히 문화재 전시, 인적교류, 학문적 교류 활성화, 경제공동네트워크 구성, 문화 콘텐츠 연계 개발, 공통 축제 이벤트 개최 등 사업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제2장 여건분석

1. 호찌민-경주엑스포 행사결과 분석
2. 한-베트남 문화교류 실태 분석
3. 국내 국제문화교류 현황 분석
4. 국내 유사사례 분석
5. 한국·베트남인 설문조사 결과 분석
6.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분석
7. 종합분석

1. 호찌민-경주엑스포 행사결과 분석

1.1 행사 개요

행사명	·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 (HO CHI MINH CITY –GYEONGJU WORLD CULTURE EXPO 2017)
주제	· 문화교류를 통한 아시아 공동 번영
기간	· 2017. 11. 11. ~ 12. 3. (23일간)
장소	· 베트남 호찌민시 일원 (응우옌후 거리, 9.23공원 등)
주최	· 대한민국 경상북도·경주시, 베트남 호찌민시
주관	·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 공동조직위원회
참가	· 30개국 8,000여명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UNESCO,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예술의전당, 국립극장,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세계실�크로드대학연맹
참여기업	· 삼성전자, POSCO, (주)한국수력원자력, 농협, 대구은행, (주)태광실업, (주)풍산등
행사내용	· 공식행사, 공연, 전시, 영상, 체험, 이벤트등(8개분야43개프로그램)

1.2 행사 경과

2015년 7월	· 차기 행사기본계획 및 타당성분석용역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년 12월	· 국제행사개최계획서제출 (도→문체부→기재부) · 호찌민시방문협의
2016년 4월	·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타당성분석 (대외경제연구원)
7월	·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개최 심사 승인
9월	·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 공동개최 양해각서 체결 (경북도청)
11월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서울)
2017년 2월	·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 공동조직위원회 창립총회 (호찌민시청)
3월	·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 집행위원회 (경주)
5월	·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 실행MOU 체결 (경주)
7월	· 행사 준비를 위한 중앙자문위원회 (서울)
9월	· 종합추진상황 보고회 (전체 참여기관)
10월	· 세부실행계획 시행 및 시설물 설치
11월	· 행사개최 11.11~12.3

1.3 주요 행사 결과

■ 개막식

- 일시 : 11.11(토) 19:00~20:30
- 장소 : 응우옌후에 거리
- 내용
 - 도지사, 도의장, 경주시장, 시의장, 문화부제1차관, 호찌민시당서기, 인민위원장 등 초청인사 2천여 명 참석
 - 응우옌거리에 관람객 약 10만여 명 방문, 베트남HTV 생방송, 호찌민 주재 외신 등 200여명 취재
 - 문재인대통령 영상메시지



■ 경주시의 날

- 일시 : 11.12(일) 19:30
- 장소 : 응우옌후에 거리
- 내용
 - 경주시장, 시의장, 레탄 리 엠 부인민위원장, 베트남한인회, 호찌민 시민 등 3천여 명 참석
 - 신라고취대 공연, 공식행사, 축하공연 (모듬북, 국악관현악, 판굿과 비보잉, 베트남 합동사자춤 공연)



■ 중앙기관, 시도·시군 참여 행사

- 일시 : 11.12(일) 19:30
- 장소 : 응우옌후에 거리, 9.23공원 등
-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전국 시도	· 서울시 : B-Boy단 '드리프트즈크루'	
	· 부산시 : 시립국악관현악단	
	· 대구시 : 공연·바자르	· 대구시의날 공연: 11. 12(일) 17:00~18:00
	· 울산시 : 동해학춤	
	· 충북 : 충주시립우륵국악단	
	· 충남 : 백제 바자르	
	· 전라북도 : 도립어린이교향악단	
경북 시군	· 제주시 : 문막 도르라공연	
	· 포항시	
	· 경주시	
	· 김천시	
	· 안동시	· 안동시의날 공연: 11. 13(월) 19:30~20:30
	· 구미시	
	· 영주시	
	· 영천시	
	· 상주시	
	· 문경시	



	· 경산시	
	· 군위군	
	· 의성군	
	· 청송군	
	· 영양군	
	· 영덕군	
	· 청도군	
	·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예천군	
	· 봉화군	
	· 울진군	
	· 울릉군	
중앙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베 우정 콘서트
	· 서울예술의 전당	명품공연 영상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홍보관
	· 국립극장	무용극 '묵향'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한국전통 공연





■ 세계민속공연

- 일시 : 11. 11 ~ 12. 3
- 장소 : 응우옌후에 거리
- 내용
 - 슬로바키아, 러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캄보디아, 브루나이, 바시키르

구분	국가	비고
아시아 (9개국)	· 태국 · 말레이시아 · 인도 · 중국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싱가포르 · 스리랑카 · 캄보디아	
유럽 (3개국)	· 슬로바키아 · 러시아 · 바시키르	
아프리카 (1개국)	· 브루나이	
합계	3대륙 13개국	



■ 한베 EDM 페스티벌

- 일시 : 11. 12 ~ 11. 21 / 21:00 ~ 22:00
- 장소 : 응우옌후에 거리
- 내용 : 음악, 댄스, 조명, 특수효과로 매회 1만명 이상 관람객 방문



■ 한베 전통무술 시범 공연

- 일시 : 11. 13 ~ 11. 30
- 장소 : 응우옌후에 거리
- 내용
 - 한국 '태권도'와 베트남 '보비남'을 통해 양국의 전통무술 퍼포먼스
 - 태권무, 격파 등 시범



■ 창작 오페라 '선비'

- 일시 : 11.15(수) 19:00
- 장소 : 응우옌후에 거리
- 내용
 - 2015대한민국오페라 대상 및 2016년 뉴욕카네기홀 공연 등 명성에 맞는 무대 공연
 - 부산시립아카데미오케스트라 협연, 메트로페라합창단, 박지연 의상디자인 등 수준급 예술인 동참



■ 한베 패션쇼

- 일시 : 11.18(토) 19:00
- 장소 : 응우옌후에 거리
- 내용
 - 한국 및 베트남 전통의상 패션쇼
 - 베트남 아오자이박물관 창립자 씨황(Si Hoang) 등 3명의디자이너, 한국 한복 패션 디자이너 이영희 참여



■ 바다 소리길

- 일시 : 11.13(수) 17:00
- 장소 : 응우옌후에 거리
- 내용

구분	주요 내용	
1부	한국과 베트남의 기악곡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평소 협주곡 '호적풍류' · 단트령협주곡 '타이응우옌에서 해를 맞이하며' · 대금협주곡 '꿈꾸는 광대' · 단보우협주곡 '이농공감' 연주
2부	한국과 베트남의 성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 띄워라 · 비나리 · 두찌라 · 사물놀이 연주 · 비보잉 '아리랑'



■ 한국 문화존

- 일시 : 11. 11 ~ 12. 3
- 장소 : 9.23공원
- 내용
 - 신라역사문화관, 경상북도·경주시홍보관, 유교문화교류관, 새마을관
 - 한국전통의 선을 모티브로 공간 구성
 - 한국과 경북의 문화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여 한국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연출

- 석굴암HMD, 3D입체영화관, 전통혼례 체험 인기



■ 바자르

- 일시 : 11. 11 ~ 12. 3
- 장소 : 9.23공원
- 내용
 - 대구시·충북 부여홍보관, 경북도 시군(22), 전통문화체험존(5)
 - 경제: 우수상품관(7), K-뷰티(5), 농식품홍보관(11), 고려인삼(3), 베트남 바자르(20)
 - 한복입기, 붓글씨, 불교문화, 백제문화, 김치·김밥 만들기 체험 행사 등



■ 한베 미술교류전

- 일시 : 11. 11 ~ 12. 3
- 장소 : 9.23공원
- 내용
 - 회화, 공예, 민화, 자수, 누비 등 한국, 베트남 작가 250여 명 작품 350점 전시
 - 한국측 소산 박대성화백, 김해자누비장, 이용주혼자수, 경북미술협회, 호찌민 미술협회,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 한국전통민화연구소, 경주민화협회 등 참여



■ 뮤지컬 플라이

- 일시 : 11.12(일)~12.2(토) 19:00
- 장소 : 벤틀극장
- 내용
 - 호찌민-경주엑스포의 최고 공연이라는 평가
 - 신라설화인 화랑과 도깨비이야기를 기계체조, 마샬아츠, 리듬체조, 치어리딩 등 고난도 기술과 접목한 넘버벌 퍼포먼스



■ 무용극 '800년의 약속'

- 일시 : 11.10(금)~11.12(일) 19:00
- 장소 : 오페라하우스
- 내용
 - 화산이씨 선조 이용상 왕자의 이야기가 모티브
 - 1장 : 리왕조의 멸망, 2장 머나먼 바닷길, 3장 신세계, 4장 고려 장군 리룡뜨엉, 5장 그리움, 6장 에필로그-꿈으로 구성



■ 뮤지컬 '용의 귀환'

- 일시 : 11.14(화)~11.16(목) 19:00
- 장소 : 오페라하우스
- 내용
 - 한국과 베트남의 민간신앙 모티브인 '용'을 소재로 국악관현악 연주, 퓨전음악, 노래와 무용으로 구성
 - 인간의 이기심으로부터 자연을 지키려는 메시지



■ 무용극 '묵향'

- 일시 : 11.16(목) 19:00
- 장소 : 호아빈극장
- 내용
 -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파토리인 묵향 공연
 - 매난국죽 사군자를 소재로 정갈한 선비정신을 한폭의 사묵화처럼 담은 작품



■ 한·베 음악의 밤

- 일시 : 11.21(화) 19:00
- 장소 : 호찌민 음악대학교
- 내용
 - 세계적 피아니스트 당타이손, 소프라노 이화영, 경북도립교향악단 협연
 - 1부 : 경북도립교향악단과 이화영, 8개의 러시아 민요, 알제리의 이탈리아인, 새야새야, 신이여 평화를 주소서
 - 2부 : 당타이손과 경북도립교향악단 협연,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 쇼팽의 왈츠 제3번 가단조



■ 한·베 영화제

- 일시 : 11.17(금) ~11.22(수)
- 장소 : 호찌민 비텍스코타워
- 내용
 - 한국 영화 8편, 베트남 영화 4편 상영
 -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홍지영 감독, 최동훈 감독, 박현진 감독, 민규동 감독, 배우 김강우, 이제훈, 정하담 등 참여
 - 이제훈 배우 팬과의 만남, 스마트폰 영화제작 워크숍을 통한 단편 영화 제작 상영 등

구분	주요 내용
한국	· 좋아해줘, 옥자, 경성학교, 우리들, 탐정홍길동, 재꽃, 터널, 암살
베트남	· The Tailor, Lost in paradise2, Like an old house, Bitcoin heist

■ 한·베 문학심포지움

- 일시 : 11.23(목) 09:30~17:30
- 장소 : 후에시 사이공 모린호텔
- 내용
 - 한·베 첫 문학 심포지움으로 전쟁을 다룬 작품 분석을 통해 양국의 화해와 포용 시도
 - 방현석, 이순원, 찐반뚜언, 판호앙, 응웬꾸앙티에우, 응웬티탄쑤언, 찐쑤언띠엔 등 80여 명 참석



■ 후에시 한·베 학술회의

- 일시 : 11.14(목) 10:00
- 장소 : 후에시 사이공 모린호텔
- 내용
 - 응우옌 반 탄 후에시장 면담, 학술회의,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경주시 문화교류 행사
 -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허권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이은석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과장, 판 타인 하이 후에시 기념물보호센터장, 응웬 당 타인 후에시 인민부위원장이 입장 발표



■ 폐막식

- 일시 : 12.3(일) 19:00
- 장소 : 호찌민 호아빈극장
- 내용
 - 도지사, 도의장, 도교육감, 호찌민시 인민위원장, 외교사절 등 2천여 명 참석



1.4 주요 성과

■ 경제분야

- 총2억 달러(2,300억원) 경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됨
 - 현장판매 103만 불
 - 현장계약 및 MOU 3,921만 불
 - 계약 추진 4,799만 불
 - 수출상담 10,480만 불
- 경제바자르, 한류우수상품전, 한·베 글로벌 비즈니스 컨퍼런스 및 수출상담회, 2017베트남 식품박람회, 한·베 자연섬유산업전 및 특별체험관, 경북우수상품관 운영, 농식품 상설판매장 운영 등

■ 언론 보도

- 국내·외 88개 언론사 150여 명 현지 취재
 - 국내 : 방송 71건, 중앙지 160건, 지방지 719건, 통신&인터넷 710건, 현지 89건 등 총1,749건 보도
 - 현지 : 방송, 신문 등 159건 보도

■ 방문객 만족도

- 엑스포 방문 만족도 4.14점,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의향 4.12점, 한국 또는 엑스포 재방문의향 4.03점 (만점: 5점)
 - 2013년 이스탄불엑스포 : 방문 만족도 3.92점,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의향 3.85점, 한국 또는 엑스포 재방문의향 3.91점

1.5 시사점

- 2017호찌민-경주엑스포는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성과를 성취함
- 엑스포 이후 양 지역간 문화교류를 지속하고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 필요

2. 한-베트남 문화교류 실태 분석

2.1 시기별 양국간 교류 양상

■ 1980년대 이전

- 역사적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는 13세기에 베트남의 왕족이 고려에 귀화한 것으로 시작 (화산 이씨 시조)
- 1964~1973년에 걸쳐 한국은 미국의 요청으로 총 6차례 31만여 명의 국군을 파병하고 남베트남 진영으로 참전
- 1986년 베트남 정부의 '도이모이 정책'과 1988년 한국의 '북방 정책'을 발판으로 한-베트남 외교 재개 여건이 조성됨
-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에 베트남의 참가를 계기로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에 양국가 합의가 이루어짐

■ 1990년대

- 베트남 전쟁 종전 17년 만인 1992년 12월 22일 정식으로 외교관계가 성립
- 그 후 한국의 여러 대통령들이 베트남을 방문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은 참전에 대한 사과를 표명함
- 수교이후 베트남의 하노이에는 대한민국의 대사관이 설치되었고 호찌민 시에는 총영사관이 개설되었으며, 한국의 서울에는 베트남대사관이 설치됨

🔍 한국과 베트남간 국제교류 현황 (1990년대)

도시명	한국 자치단체	결연일자	교류 내용
호찌민시	부산시 본청	1995-11-03	자매교류
동나이성 비엔호아시	경남 김해시	1996-01-23	자매교류
하노이광역시	서울시 본청	1996-05-01	자매교류
동나이성	경남 본청	1996-05-13	자매교류
붕따우주	전남 본청	1997-05-12	우호교류
빈딘성 꾸이논시	서울시 용산구	1997-06-26	자매교류
하이퐁시	인천시 본청	1997-07-25	자매교류
다낭시	경남 창원시	1997-09-23	자매교류
나트랑시	인천시 중구	1999-03-08	우호교류

■ 2000년대

- 2002년 수교 10주년 계기를 거쳐 2009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격상과 2012년 FTA협상을 공식 선언
- 2001년 8월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 시 양국 정상은 우호협력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한-베트남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공동선언
- 2009년 양국은 기존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한편, 2012년 FTA 협상 개시로 협력관계가 더욱 가속화

➡ 한국과 베트남간 국제교류 현황 (2000년대)

도시명	한국 자치단체	결연일자	교류 내용
붕따우시	인천시 계양구	2000-08-29	자매교류
카인호아성	울산시 본청	2002-06-20	자매교류
하이즈엉성 하이즈엉시	경기도 의정부시	2003-07-04	우호교류
꽁남성	경기도 오산시	2004-03-10	우호교류
타이응우옌성 타이응우옌시	부산 동래구	2004-07-05	우호교류
하이즈엉성	경기도 수원시	2004-07-13	자매교류
바리아-붕따우성	경기도 안산시	2004-08-17	우호교류
다낭시	대구시 본청	2004-10-21	우호교류
하노이광역시 하이바짱구	부산 금정구	2004-11-16	우호교류
푸토성	경기도 화성시	2004-11-19	우호교류
타이응우옌성	경북 본청	2005-02-21	자매교류
빈즈엉성	대전시 본청	2005-05-17	자매교류
퐁안성	충남 본청	2005-06-09	우호교류
응에안성 빈시	경기도 남양주시	2005-11-15	자매교류
미토시	경남 창원시	2006-06-15	자매교류
꽁닌성	강원도 본청	2007-08-09	우호교류
푸옌성	충북 본청	2007-09-06	우호교류
투아티엔후에주 후에시	경북 상주시	2007-09-07	자매교류
끼엔장주	제주도 본청	2008-05-21	우호교류
빈푹성	충북 본청	2008-10-21	우호교류
호찌민시	부산 연제구	2009-03-09	우호교류
닌빈시	충북 제천시	2009-10-19	자매교류

■ 2010년대

- 2012년 한국과 베트남간 FTA 협상 선언 이후 2015년 12월 발효됨
- 1992년 대비 20년만인 2012년의 한국의 對 베트남 수출 규모 36배, 수입 규모는 95배 증가했고, 2012년 수교 20주년 만에 총 교역규모 216억 달러를 기록
- 경제교류 외에도 KOICA 무상원조 규모가 1억 5백만달러에 이르며 2010년 한국의 새마을 운동과 유사한 '새 농촌(Nong thonmoi)운동'을 전개
- 1992년 수교 시점 대비 2012년의 한국의 對 베트남 인적 교류는 584배 증가하였고, 베트남의 對 한국 인적 교류는 159배가 증가함

2.2 분야별 양국간 교류 양상

■ 경제 교류

- 교역 : 1992년 대비 2012년의 한국의 對 베트남 수출 규모 36배, 수입 규모는 95배 증가했고, 2012년 수교 20주년 만에 총 교역규모 216억 달러를 기록
 - 한국 입장 : 베트남은 6번째 수출국(2012년 기준 159억 달러)이자, 17번째 수입국(2012년 기준 57억 달러)
 - 주요 수출 품목 : 반도체, 합성수지, 열연강판, 편직물, 전자부품 등
 - 주요 수입 품목 : 의류, 원유, 섬유제품, 무연탄, 수산물, 목재류 등
 - 베트남 입장 :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에 이은 4번째 수출국이자, 중국에 이은 2번째 수입국(2012년 기준)
- 투자 :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2005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급감하였다가 점차 회복 중에 있음
 -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액 : 2000년 6,8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2년 기준 약 9억 달러로 증가했고, 이는 한국이 투자하는 국가들 중에서 9번째에 해당
 - 한국은 베트남에 투자한 국가들 중에서 일본, 대만, 싱가포르에 이어서 4번째로 많은 금액을 투자(2012년 기준)
- 한편,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말 기준 3,000여개의 기업이 베트남 직원 60만 명을 고용한 수준

■ 문화 교류

- 베트남과의 문화 교류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었고, 특히 최근에는 '한류'를 중심으로 양국 간 문화 교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MBC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와 <별은 내 가슴에> 등 K-드라마가 홍콩, 타이완에 방영되고, 같은 시기 중국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에서 당시 아이돌그룹인 HOT와 가수 안재욱의 노래 등 K-Pop이 방송되기 시작하였는데, 1998년 K-드라마가 베트남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5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짐
 - 삼성전자가 안재욱을 모델로 선정하여 베트남 시장을 공략했으며, K-드라마의 성공이 한국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한식, 패션, 웰빙까지 한국문화와 생활양식 전반이 유행으로 번져갔으며 이와 함께 한국어 보급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2010년 아시아권에 대한 한국의 방송 콘텐츠 수출액 1억 달러 가운데 베트남의 비중은 약 460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2008년의 약 84만 달러와 비교해 보면 약 5.5배 상승
 - 특히 베트남 TV 전체 프로그램 가운데 한국 드라마 방영 비율은 10%에 달하고, 해외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는 한국 방송이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
- 한국계 혼혈인(라이따이한7)) 지원 : 현재 2,000여명으로 추산되는 '라이따이한'들을 위해 NGO 등 민간 중심의 직업훈련교육이 진행 중
 - 1991년 민간출자로 한국계 혼혈인(라이따이한)의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휴먼 직업기술학교(Human Job Training School)'를 호찌민 시에 설립
 - 1세대 라이따이한의 경우 대부분 30세 이상으로, 현재에는 2세대 직업훈련을 완료하고 3세대 직업훈련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 중
- 민간의 사회·문화 협력 지원 활성화 : 한-베 재단, 한-베 문화교류센터 등 민간단체가 다문화 가족지원, 장학 사업 등으로 사회문화 교류 협력을 지원
 - 한-베 재단 : 베트남 음악·예술가들과의 교류 주선, 양국의 역사 분야 자료 교류, 베트남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중개서비스 등을 제공
 - 한-베 문화교류센터 : 결혼이주여성 현지사전교육, 농어촌 계몽사업, 저소득층 장학사업, 한-베 청년 문화 교류 사업을 실시 중

■ 인적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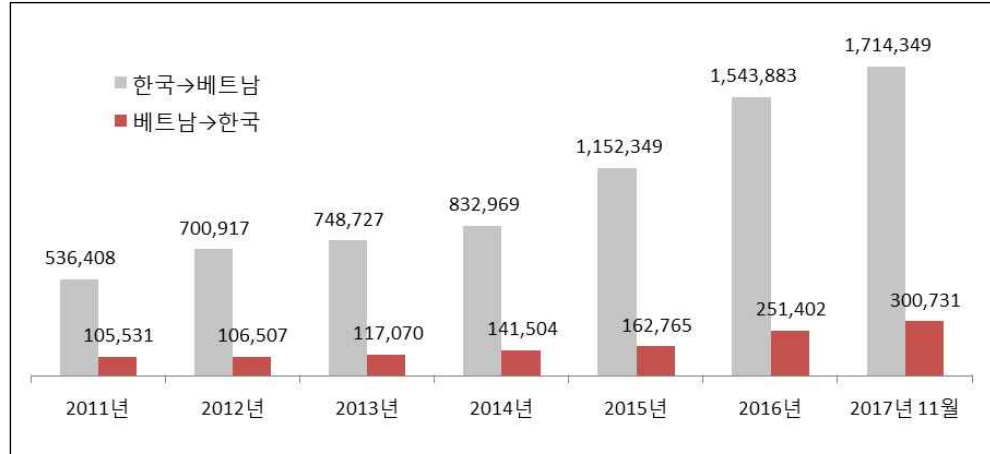
-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인적 교류 형태는 크게 영구적으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어 국적을 변경하는 형태와 일시적인 방문 형태로 나뉨
-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후 귀화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전자에 해당하며, 다른 하나는 일시적인 방문 형태로 유학이나 비즈니스,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
- 1992년 수교 시점 대비 2012년의 한국의 對 베트남 인적 교류는 584배 증가, 베트남의 對 한국 인적 교류는 159배 증가
- 체류민 규모 : 현재 재베 한국인은 총 13만 5천여 명(전체 재외동포 700만 명의 2%)이고, 재한 베트남인 11.5만 명은 재한 외국인 144.5만 명의 8.0%를 차지
 - 2012년 기준으로 일시 방문자도 급증했는데, 사업이나 관광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은 70만 여명에 달했고, 베트남인 11만 여명이 친지 방문과 관광 등의 이유로 한국을 방문
- 국제결혼 :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은 전체 국제결혼 누적건수 28만 건 가운데 누적 7만여 건으로, 중국의 14만 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음
 - 한국에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크게 늘어나면서 양국 간 관계는 한층 더 긴밀해짐
 - 베트남 국제결혼 비율은 2000년 77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7,000여명에 달해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누적인원은 7만여 건에 달함¹⁾
- 노동 협력 : 2012년을 기준으로 고용허가제로 도입된 해외인력 5만 1,700여 명 가운데 베트남 인력이 7천여 명(13.5%)으로 전체 15개국 중 캄보디아(8,000여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음

■ 관광 교류

- 2017년 11월 기준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 관광객은 총 300,731명이며 베트남을 찾은 한국관광객은 1,741,349명임 (한국관광공사, 2017)
-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베트남은 2015년 1.4%에 불과했으나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2017년 11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1) 우리나라 전체 다문화 가정의 30.5%가, 경북 전체 다문화 가정의 47.9%가 베트남에서 이주한 여성임

베트남인 300,731명은 동기간 방한 외래관광객 총 9,841,391명의 3.1%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년 동기 대비 29.2% 성장한 수치임



자료 : 한국관광공사 통계자료

< 한국-베트남 관광교류 현황 >

- 베트남은 한국관광객이 체험을 원하는 경관, 독특하고 특이한 문화, 친절한국민 등이 있으며 베트남 국민은 한국의 자연경관, 문화체험을 원하고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분석됨
- 이에 중앙정부와 호찌민시 양국 간의 관광과 친선관계 발전을 위한 베트남 관광총국과 한국관광공사 간의 협력협약 체결식이 2017년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림
- 이에 따라 양 국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며 전문상담원을 조직하기로 하였으며, 양측이 개최하는 이벤트를 지원하는데 합의함
- 향후에는 한국관광공사와 베트남 에어라인이 협력해 '베트남 에어라인과 함께 하는 한국관광의 해 2017' 홍보에 착수키로 함

■ 유학생 교류

- 국내 대학에 유학을 목적으로 입국한 베트남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2017년 6월말 기준 우리나라에 유학하고 있는 베트남 유학생 수는 30,386명으로 전체 유학생 231,854명의 13.1%를 차지하고 있음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 항공편 취항

- 한국과 베트남 간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베트남항공은 서울, 부산과 하노이, 호찌민에 취항 중임
- 비정기적으로 전세기가 편성되기도 하지만, 국내의 저가항공(LCC)을 확대 배치하여 보다 저렴하게 왕래하는 것이 양국간 상호교류가 확대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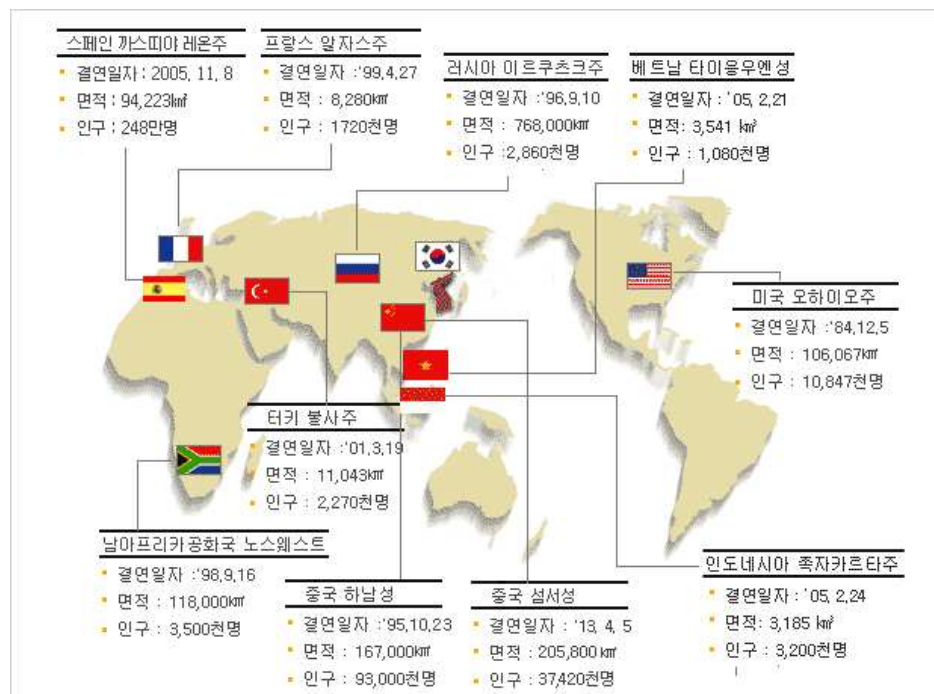
➡ 한국과 베트남간 항공기 편성 현황

거점도시	공항IATA	공항ICAO	거점항공명	항공사 및 취항지
서울인천	ICN	RKSI	인천	· 대한항공(2개) : 호찌민, 하노이 · 아시아나항공(2개) : 호찌민, 하노이
부산	PUS	RKPK	김해	· 대한항공 : 하노이
하노이	HAN	VVNB	노이바이	· 베트남항공 : 서울(인천), 부산
호찌민	SGN	VVTS	떤선넛	· 베트남항공 : 서울(인천), 부산

자료 : 김진욱(2013). 다문화 지원사업과 한-베트남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2.3 경북-베트남 문화교류 실태

- 경상북도는 전세계 9개 나라 10개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음



- 경상북도는 2005년 베트남의 타이응우옌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면서 베트남과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함

- 베트남은 경북이 7번째로 맺은 자매결연 도시

➡ 경북의 해외 자매결연 현황

국가	지자체명	결연일	자매도시 현황
미국	오하이오주	1984.12.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미국 동북부, 5대호의 하나인 이리호 남안에 위치 · 인구 : 1,100만명 · 면적 : 106,067km² · 기후 : 온화하고 4계절이 뚜렷함 (연평균 기온 18.6도) ·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 축산, 옥수수, 밀, 사탕수수 등 미국 최대의 항공 수송처 (비행장 800여개 소재) - 공업 : 미국 4대 공업주의 하나 - 자동차 공업 : 부품생산 전국 1위, 자동차생산 전국 2위, 철강생산량 전국 2위, 미국 100대 기업 11개 소재 - 주요수출품 : 농산물, 운송장비, 산업기기, 컴퓨터, 전기전자
중국	하남성	1995.1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중국대륙 중앙부(황하강 중하류) · 인구 : 9,400만명 · 면적 : 167천km²(평야면적 55% 이상) · 기후 : 사계절이 뚜렷함 (남부 아열대, 중, 북부 온난대) ·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옛부터 중원으로 불림 - 중국문화의 발상지(중국 역대왕조의 7대 수도중 낙양,안양,개봉 등 3개수도 소재) - 중국 1위의 인구규모 풍부한 지하자원 - 몰리브덴, 진주암, 홍주석 (매장량 중국1위) - 보크사이트, 시멘트용 석회암 (매장량 중국2위)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1996.0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동시베리아지역의 중심부 · 인구 : 241만명 · 면적 : 768천km²(러시아 전체의 4.5% : 한반도의 3.5배) · 기후 : 겨울이 대부분(년중 170일 0℃ 이하) ·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자원 : 석유, 가스, 석탄,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인 - 주요산업 : 셀룰로오즈, 목재, 알루미늄, 석유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 농경지 260만ha, 지역 총 생산의 8% (목축65%,작물35%) - 세계담수량의 20%를 차지하는 바이칼 호수 위치 - 과학 : 과학기술력 시베리아 2위
남아프리카공화국	노스웨스트주	1998.09.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남아공 서북지방(보브타치아나) - 인구 : 360만명 - 면적 : 11만8천km² -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 쇠고기 생산(43%), 땅콩 생산(55%), 과실류 풍부 - 공업 : 백금(67%), 플러티늄(94%), 금(25%) 등 광물 풍부 - 남아공 전체에 대한 생산비율임 - 사회간접자본 시설 - UN지원으로 남아공 최대 화물집산공항 건설중 - 전략적 수송네트워크 추진중(철도, 육로) - 인도양과 대서양을 잇는 육상도로 개발 등
프랑스	알자스주	1999.04.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프랑스 북동단 - 인구 : 179만명 - 면적 : 8,280km² - 기후 : 온화함(1월평균 -1°C, 7월평균 20°C) -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으로 佛, 獨 교차점령 지역 - 프랑스에서 가장 산업화된 지역 - 섬유, 기계, 자동차, 화학, 식품산업발달 - 통합유럽(EU)의 주요공업지역으로 성장의삼 각지역에 위치(佛 알자스주, 獨 바덴주, 스위스 바젤주) - 국제기구 다수 소재 : EU 의회본부, 유럽평의회, 유럽안전 보장회의등 소재(프랑스 제2의 외교, 경제 중심지)
터키	불사주	2001.03.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터어키 서부(말마라해 연접) - 인구 : 170만명 - 면적 : 11,043km² - 기후 : 온화함(1월평균 -15°C, 7월평균 25°C) -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스만제국의 수도로써 문화관광자원 풍부 - 동서문명의 교차지역에 위치하여 산업이 골고루 발달함(터어키 최대의 섬유생산지, 자동차, 식품가공, 관광산업 발달)
베트남	타이응우엔성	2005.0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베트남 북동부, 수도 하노이와 인접 - 인구 : 113만명 - 면적 : 3,541km²(전국토의 1.13%) - 기후 : 북부(아열대성), 남부(열대몬순) -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노이 근교에 위치 - 경제·문화교류의 중심지 - 석탄, 철광석 등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로 공업의 중심지 - 뉴이콥 호수 등 풍부한 관광자원 보유
인도 네시아	족자카르타주	2005.0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중부 자바섬 · 인구 : 350만명 · 면적 : 3,185km²(경상북도의 1/6) · 기후 : 열대성 몬순, 고온 다습 ·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이 풍부 (제2위의 관광지) - 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인 보르부드르 불교사원 및 프람바난 사원 보유 - 원유, 천연가스, 철광석, 목재 등 자원 풍부
스페인	까스띠야 레온주	2005.1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스페인 본부 · 인구 : 251만명 · 면적 : 94,273km²(경상북도의 5배) · 기후 : 지중해성 기후 (연평균 10°C) ·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언어의 모태지역 - 전세계 4억명 사용 - 스페인내 최대 관광지 - 자동차산업, 음식산업, 농업발달
중국	섬서성	2013.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중국대륙 중앙부 · 인구 : 3,700만명 · 면적 : 206천km² · 기후 : 온화(1월:3~10°C, 7월:22~28°C) ·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에너지 중화학공업기지로서 탄전 및 가스전 보유 - 정밀기계 및 전자공업 발달 - 실크로드의 출발지이며, 진시황릉 병마용등 유명 관광지

자료 : 경상북도 홈페이지

- 경상북도와 베트남이 교류를 시작한 것은 2003년 베트남 카이 총리가 포스코를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됨
- 경상북도는 2005년 이전까지 동북아시아 국가에 중점을 두었던 교류협력을 동남아시아로 확대키로 하고 당시 이의근 도지사가 2월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연달아 방문함
- 우선 2월 21일 도지사는 베트남 타이응우옌성을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동시에 타이응우옌성 다이떠군 라방면 룡반마을에서 경북도 새마을 회장단,

타이응우엔성 관계자, 현지 주민 등 3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회관 기공식을 개최함

- 새마을운동 발생지인 경북이 다른 나라에서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당시에 처음으로, 이후 경북은 타이응우엔성에서 새마을회관 건립,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보건진료소 설립, 초등학교 컴퓨터 보급 활동을 펼쳐옴
- 2005년 6월에는 타이응우엔성의 지도자들이 경북을 방문해 새마을운동 연수를 받았는데, 이후에도 새마을 연수는 지속됨
- 경북과 베트남간 스포츠교류도 활발해 지는데 경북체육회가 2010년부터 베트남 사격 대표팀과 연 2~3회의 합동·교환훈련으로 베트남 사격팀의 기량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를 한 결과 베트남 사격팀이 2010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 1개·동메달 2개를 획득하였고, 2012년 런던올림픽 출전(2명)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는데 베트남 사격팀이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것은 베트남 역사상 최초라는 평가를 받음
 - 이후 경북 체육회 감독을 지낸 박충건 감독의 지도로 베트남 사격 대표팀은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사격 부분 금메달을 획득함
- 경북 소재 지자체 단위에서도 베트남과의 자매결연이 활성화 되는데, 2007년 9월에는 경주시와 투아티엔성 후에시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포항시는 2011년 베트남 바리아-붕따우성과 교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바리아-붕따우성의 국제연날리기축제와 포항국제불빛축제를 비롯해 한-베트남 수교 20주년 행사에 상호 방문하는 등 다양한 문화교류를 진행해오고 있음
- 경북 소재 대학교 차원의 학생교류와 학술교류가 이후 지속되고 있는데, 2005년 12월에 경북대학교가 베트남의 약용식물을 조사하는 탐사대를 파견하였고, 2006년에는 경북전문대가 베트남 빈증대, 2011년에는 경주대와 베트남대학이 학생 교류를 위한 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함
- 경북 소재 민간단체의 교류협력도 활성화되기 시작하는데 (사)환경실천연합회 경북본부가 2007년 『낙동강 환경포럼』을 개최하면서 한-베트남 환경단체 우호 교류 협약조인식을 가짐
- 이렇듯 경북과 베트남은 문화, 체육,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교류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향후에는 베트남 관광객의 경북 방문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음

3. 국내 국제문화교류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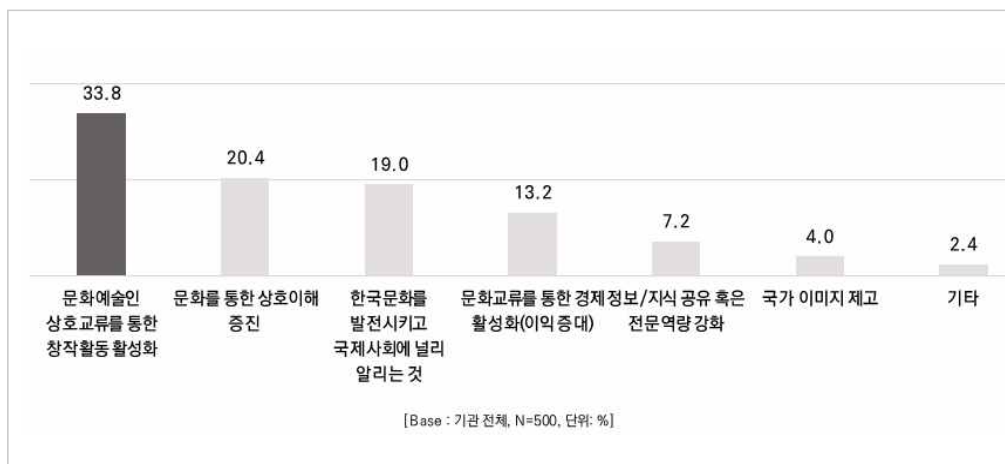
3.1 조사개요 2)

- 조사목적 : 국제문화교류 사업현황과 그 성과 파악
- 조사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조사대상 : 국제문화교류 활동 혹은 지원 경험이 있는 기관 및 단체 (721개)
- 조사기간 : 2017년 2월 6일~2017년 3월 3일(4주간)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방문 및 이메일 조사
- 조사내용 : 국제문화교류 인력현황, 교류현황, 교류행태, 교류변화, 지원정책 및 만족도

3.2 조사결과

■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주요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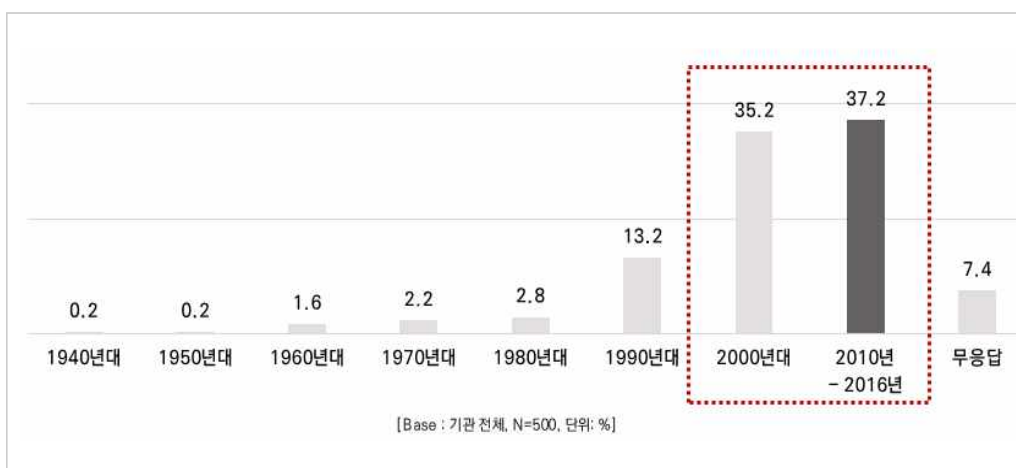
-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하는 주요 목적으로 '문화예술인 상호교류를 통한 창작활동 활성화'가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화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20.4%), '한국문화를 발전시키고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1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2) 문화체육관광부(2017). 국제문화교류 실태 시범조사.

■ 국제문화교류 사업 시작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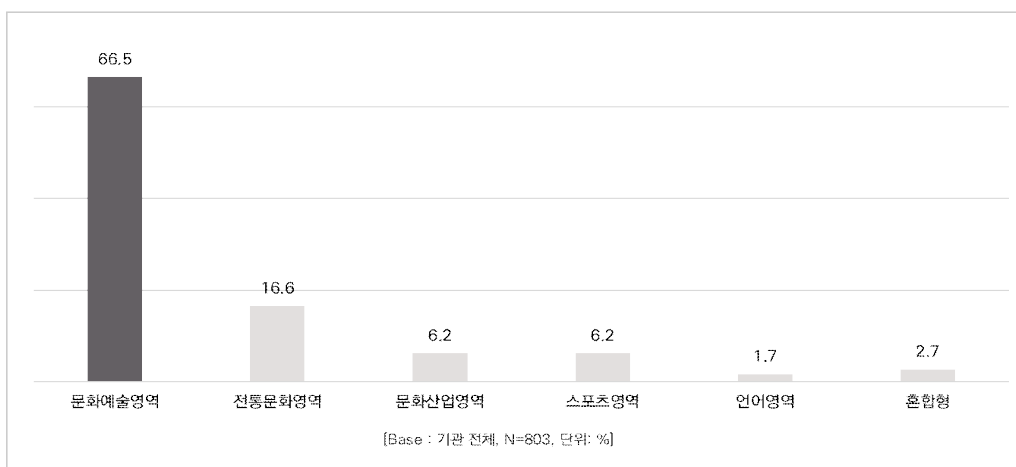
-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처음 시작한 시점으로 '2010년 ~ 2016년'이 37.2%로 가장 많았으며, '2000년대'도 35.2%로 비교적 많았음
- 2000년대 이후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시작했다는 응답이 전체 기관의 72.4%에 달함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사업은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임



■ 국제문화교류 사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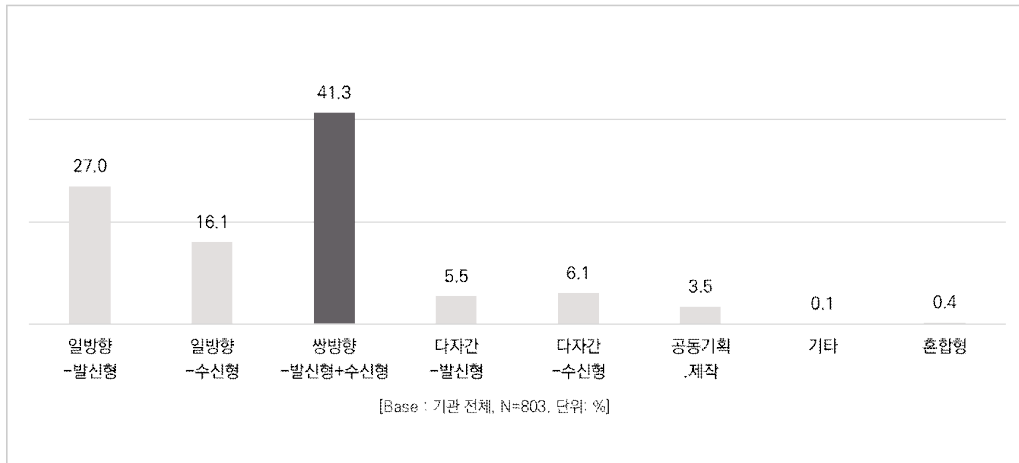
① 교류 영역

- 2016년에 진행된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주요 교류 영역으로는 '문화예술 영역'이 66.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통문화 영역'(16.6%), '문화산업 영역'과 '스포츠 영역'(각각 6.2%), '언어 영역'(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② 교류 방식

- 2016년에 진행된 국제문화교류 지원 사업의 주요 교류 방식으로는 '쌍방향(발신형+수신형)'이 41.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방향(발신형)'(27.0%), '일방향(수신형)'(1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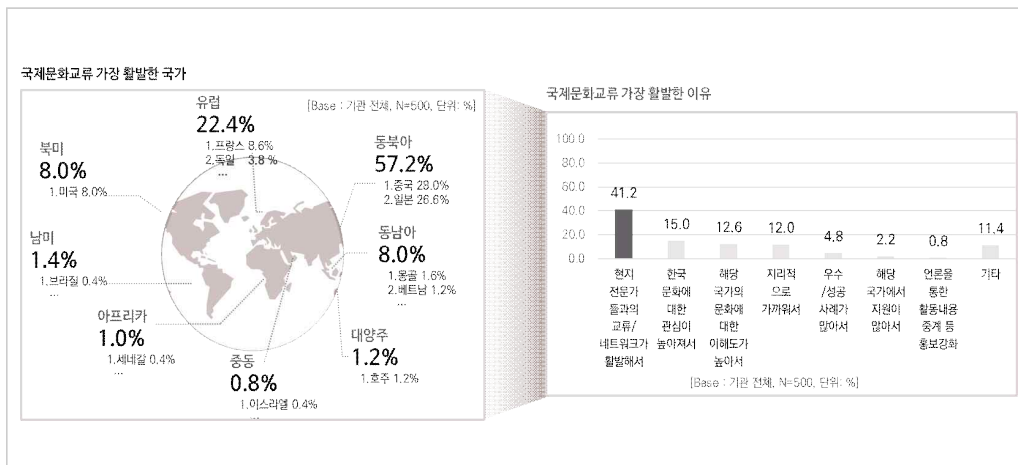
■ 국제문화교류가 가장 활발한 분야

- 국제문화교류가 가장 활발한 분야는 '작품교류'인데, 한국의 국제문화교류가 활발한 이유는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국제문화교류가 가장 활발한 분야는 '작품교류'가 31.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제행사 참여'(27.2%), '학술·정책·인적 교류'(15.6%), '문화홍보'(11.4%), '공동프로젝트'(10.2%) 등의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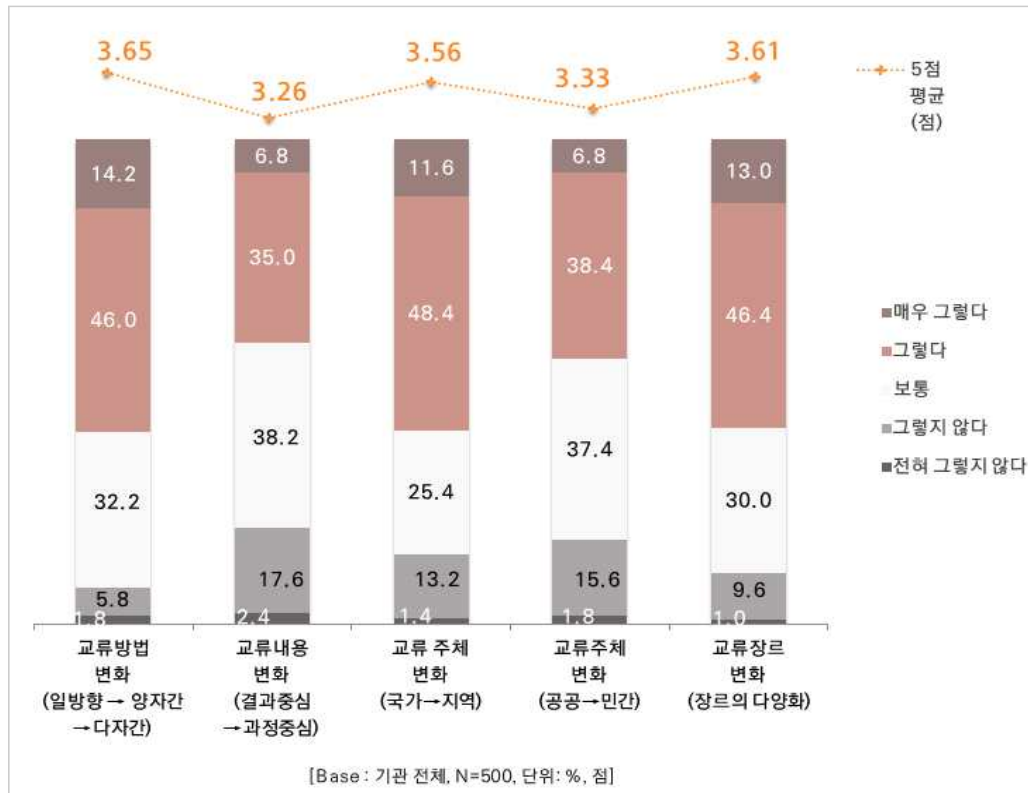
■ 국제문화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

- 국제문화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는 '중국'이 2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본' (26.6%), '프랑스'(8.6%), '미국'(8.0%), '독일'(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대륙별로 보면, '동북아'가 57.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유럽'(22.4%), '동남아' 및 '북미'(각각 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중동'(0.8%), '아프리카'(1.0%), '남미'(1.4%) 대륙과는 국제문화교류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됨



■ 국제문화교류 변화의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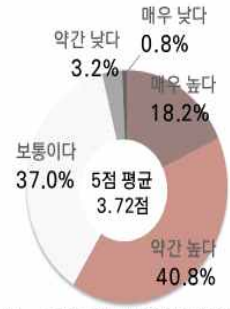
- 최근 3년 간 국제문화교류 방법이 일방향 → 양자간 → 다자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국제문화교류 변화에 대한 의견들이 모두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음
- 과거에 비해 최근 3년 동안 '국제문화교류 방법이 일방향에서 양자간으로, 양자간에서 다자간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5점 만점에 평균 3.6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장르가 다양화되고 있다(평균 3.61점)', '교류 주체가 국가에서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평균 3.56점)', '교류 주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변화하고 있다(평균 3.33점)', '교류 내용이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평균 3.26점)' 순으로 나타남



■ 향후 3년 내 국제문화교류 확대 가능성

- 전체 기관의 59.0%가 향후 3년 내 국제문화교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함
- 국내 지원 현황 및 네트워크 기반 등 여러 여건을 고려했을 때, 향후 3년 내 국제문화교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관은 전체의 59.0%(매우 높다 18.2% + 약간 높다 40.8%)로 나타남
- 향후 3년 내 국제문화교류 확대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한 이유(1순위 기준)로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35.0%)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제문화교류 인력의 전문성(20.0%), 국제문화교류의 세계적 트렌드 부합여부(10.0%)도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향후 3년 내 국제문화교류 확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 이유(1순위 기준)로 국제문화교류 콘텐츠의 경쟁력(18.3%)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네트워크 확보의 가능성(14.9%), 국내 예술가/단체 기관의 관심(1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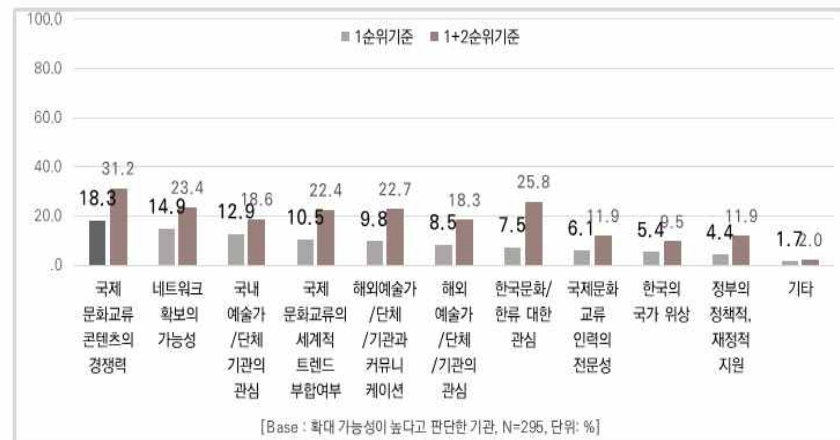
국제문화교류 확대 가능성



확대 가능성 낮다고 판단한 이유



확대 가능성 높다고 판단한 이유



■ 국제문화교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요소

- 국제문화교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로 국제문화교류 전문 인력 육성 및 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음
- 이들 필수요소(1순위 기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제문화교류 전문 인력 육성 및 역량 강화'가 1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쟁력 있는 국제문화교류 콘텐츠 생산'(16.4%), '국제문화교류 본연가치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16.0%), '민간주도 교류 활성화 지원'(14.6%), '정부의 재정 지원'(13.4%), '교류국 상호간의 문화이해를 위한 전문기관 진흥'(1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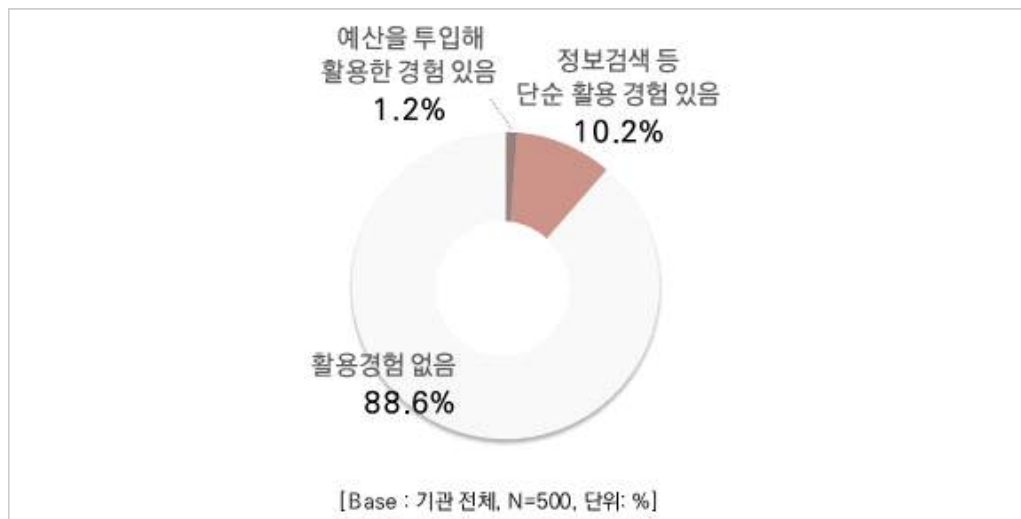
■ 국제문화교류 관련 지원사업 개선 필요사항

- 국제문화교류 관련 지원사업의 개선 요구 사항으로 지원 예산(금액) 확대가 가장 많았음
- 국제문화교류 관련 지원사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1순위 기준)으로 '지원 예산(금액) 확대'가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원사업의 지속성 확보(일회성 지원 개선)' (21.0%), '지원되는 교류분야 확대'(16.0%), '지원받기 위한 절차/방법의 간소화'(1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국제문화교류 사업 관련 ICT,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용 경험

-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ICT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험은 11.4%로 나타남
- 아직까지 국제문화교류 관련하여 ICT나 빅데이터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



3.3 시사점

- 국제문화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분야는 '문화예술인 상호 교류'와 '문화예술 작품 교류'이나 차츰 교류방식은 다양화하고, 교류주체도 국가에서 지역으로, 공공에서 민간으로, 교류 결과보다 과정으로 이전하는 추세에 있음
- 이에 따라 국제문화교류의 목적도 단순한 문화예술 교류에서 경제 활성화 등 다양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문화교류 소재도 전통문화(16.6%)는 적은 반면 문화예술(66.5%)이 압도적으로 많아 해당 국가와의 공통관심사 영역에서부터 교류를 확대하는 추세로 판단할 수 있음
- 국제문화교류가 가장 활발한 대륙과 국가는 '동북아'와 '중국'이었으나 최근 베트남(1.2%)은 지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향후 국제문화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 및 인력의 부족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항목을 제기됨

4. 국내 유사 사례 분석

4.1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본청

- 2017년 12월 현재 부산광역시는 일본의 2개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음
 - 시모노세키시 : 1976년 10월 11일
 - 후쿠오카시 : 2007년 2월 2일
- 우선, 시모노세키시는 부산광역시가 일본과 첫 자매도시 결연으로, 부산시와 시모노세키시는 자매도시 결연 이전부터 청소년·체육·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교류활동을 해 오고 있음
- 부산시는 1992년 4월 공무원 상호파견 협정을 맺고 부산시는 매년, 시모노세키시는 2년마다 각 1명씩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고, 관광전·국제회의의 공동 참가, 직원 연수단 방문, 양 도시 축제 참가, 조선통신사 국제교류사업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음³⁾
- 양 시는 1990년 9월 공무원 상호파견 협정에 의거하여 2년마다 각 1명씩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고, 공동회의 참가·관광전 교환 개최·행정·문화·스포츠·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 꾸준한 교류활동을 시행해 오고 있음
- 2009년에는 행정교류 20주년을 기념해 '2009 부산-후쿠오카 우정의 해' 선언식을 가졌고, 후쿠오카의 '아시안먼스 2009' 행사 기간에 조선통신사 우정의 축제와 통신사 행렬 재현 행사를 펼쳤고, 이듬해인 2010년에는 조선통신사 한·일 연고도시교류대회(2010)를 개최함
- 2011년 7월 30일에는 시모노세키시와의 자매도시 체결 제3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시모노세키시 시장 및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시모노세키시민 등 130여 명이 부산을 방문함
 - 이때 이벤트 행사로 프로야구 관람 및 응원, 시모노세키시 시장의 시구식 및

3) 당초 부산광역시와 후쿠오카시는 1989년 3월에 자매결연을 위해 내무부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내무부는 '자매결연 불가, 행정교류를 위한 상호 합의문 교환 가능'이라는 회신을 보내음. 이에 1989년 10월 후쿠오카에서 당시 안상영 부산시장, 구와하라 후쿠오카 시장이 행정협정도시 교류 협정서에 서명한 뒤 본격적인 양 시간 교류활동이 시작됨(황영우·류태창, 2003).

일본 전통춤 요사코이 공연이 펼쳐짐

- 또한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직야구장 광장에 설치한 홍보부스에서 시모노세키시 관광컨벤션협회와 부산관광협회, 제주관광협회 합동으로 일본 지진 복구를 위한 관광홍보와 함께 '부산갈매기' 노래에 맞춘 요사코이 공연단의 공연도 선보임
- 부산광역시는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하드웨어 정비 차원에서 부산박물관 제2전시실과 조선통신사역사관 등을 건립함
- 부산박물관은 2000년 5월에 개관하여 통신사와 왜관을 주요 콘셉트로 하고 있으며, 부산역사전문관으로 조성
- 조선통신사역사관은 2011년 4월 21일에 개장하였는데, 부산에서 통신사 관련 학술연구와 문화사업이 확대되면서 조선통신사에 관한 각종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알리며, 부산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 브랜드로 개발하기 위해 자성대공원 내에 건립됨

■ 부산국제교류재단

- 부산국제교류재단은 국제 문화교류와 관련하여 민간 국제교류 지원 사업을 전담 실시하고 있음
- 먼저 민간단체의 국제교류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학교 및 민간단체의 자매결연 희망 학교 및 관심 단체를 연계 및 지원하고, 원활한 교류 추진을 위한 통·번역 및 MOU 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단체 국제교류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국제교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국제교류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 그리고 자매도시 인사를 부산에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제적·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부산의 선진 기술을 자매도시에 전수하는 실용적인 교류를 진행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자매도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 자매도시 부산을 자매도시에 좀 더 소개하고자 자매도시가 주최하는 국제행사 및 교류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후쿠오카 아시아태평양페스티벌에 부산 홍보 부스(부산-후쿠오카 교류 소개, 부산 및 축제 홍보 등) 운영, 부산-후쿠오카·시모노세키 대학생 인턴십 상호교류, 부산-시모노세키 마라톤 교류(가

이코 마라톤 대회 참가 및 문화탐방), 시모노세키 리틀부산 페스타 공연단(부산 국악공연팀 페스티벌 개막 공연 및 학교 교류 공연) 파견, 후쿠오카/시모노세키 시 한국어 말하기 대회(후쿠오카 한국어변론대회 부산국제교류재단상 수여, 시모노세키 시립대학 코리안 스피치 대회 부산시장상 수여, 수상자 부산 초청)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또 시민·학생과의 인적교류를 통해 자매도시의 문화를 체험케하고 사진전 교류, 공연단 교류 등을 통해 자매도시 시민에게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부산을 홍보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매년 외국인과 함께 각국의 음식·문화·전통 등을 교류하고 체험하는 축제를 열고 있음

■ 부산문화재단

- 일본 자매도시와의 문화교류와 관련하여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이 부산문화재단의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임
- 2009년 1월에 설립된 부산문화재단은 2010년 4월에 조선통신사 업무를 수탁한 이래, 조선통신사를 부산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콘텐츠로 성장시키기 위해 新 조선통신사 사업, 조선통신사 축제 개최, 한일네트워크 사업 및 학술·홍보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사업을 한일 공동 지속적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조선통신사 축제를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재하는 작업을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에 등재가 확정된 상태임

■ (사)한국예총부산광역시연합회

-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매년 9월과 10월에 걸쳐 음악·미술·국악·무용·연극·영화·문학·건축·사진·연예예술·꽃예술·차문화 등을 선보이는 부산예술제를 개최
- 2009년부터는 '자매도시와 함께 하는 국제교류 예술제'로 진행함으로써 상하이·시모노세키·후쿠오카 등의 예술인들을 초대해 무대를 꾸미는 등 국제교류 예술제로서의 영역도 넓혀가고 있음
- 특히 '2012 부산예술제'에서는 50주년을 기념하여 '새로운 예술, 50년을 넘어

서'를 슬로건으로, 지역 문화·예술계가 거둔 성과를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한편, 상하이·시모노세키·후쿠오카 등 자매도시와의 예술교류를 진행한 바 있음

- 또한, 개막식에 앞서 매년 '부산시 자매·우호도시 예술교류 심포지엄'을 열어 일본(시모노세키·후쿠오카)을 포함하여 6개 도시 관계자가 모여 자매도시 간 예술 교류 방안을 논의함
- 그리고 개별 예술 협회들이 전시와 공연을 개최해 오고 있는데, 2010년에는 부산연극협회가 '1.22'와 '지상의 방 한 칸'을 공연했는데, 특히 전자는 부산·후쿠오카 교류 작품으로 일본 배우(마이, 이리 등)가 부산극단 도깨비 단원들과 함께 연습하여 무대에 올렸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또한, '2012 부산예술제'에서는 '제3회 해외자매도시 문학작품 교류전'과 '해외자매도시 미술 교류전'을 개최하였고 '2013 부산예술제'에서는 '2013 부산시 자매도시 예술교류 심포지엄', '부산예술상 시상식', '제4회 해외자매도시 문학작품 교류전' 등이 열림

4.2 광역자치단체의 베트남 교류 현황

■ 서울특별시

- 서울시는 1996년 5월 1일 베트남 하노이와 자매결연 체결
- 서울은 2006년은 행정교류 위주로 추진하다가 2016년에는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한 공연단 방문을 추진한 바 있음

년도	주요 교류 내용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노이시 청소년(6명) 직업훈련 · 하노이시의회 대표단(8명) 서울시 방문 · 하노이 부시장(도황언) 서울시 방문 -홍강개발협력에 관한 협정체결 · 하노이 민속공연단(15명) 지구촌한마당 참석차 서울시 방문 · 문화재보호 관련 서울시 방문: 하노이 부시장(느오티탄항)외 5명 · 하노이시 감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6명 서울시 방문 · 하노이시 대중동원위원회 위원장 등 8명 서울시 방문 · 베트남 내무부차관 등 대표단 10명 서울시 방문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하노이 자매결연 20주년기념 행사 개최 및 하노이 대표단 서울 방문 - 행사명: 하노이의 날 - 장소: 청계광장 - 내용: 하노이 전통공연단 공연, 하노이 대표 사진전 개최 등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는 2004년 10월 21일 베트남 다낭시와 자매결연 체결
- 주로 의료 분야와 청소년 교류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특징임

년도	주요 교류 내용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낭병원 신경외과과장, 동산병원 신경외과 연수 · 다낭시 망논유치원 개원식:건설협회대표단 참석 · 다낭시 대표단 13명 대구방문 · 다낭시 공연단 6명, 대구컬러풀축제 참석, 공연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낭병원 의사 동산병원 신경외과 3개월 연수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낭시 대표단(당서기 외 10명) 대구시 방문(09.9.22~9.23)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낭국제불꽃대회 경축 참가(10.3.26~3.30)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낭시청 방문 및 대구시립 국악단·무용단 한국 공연 - 일시 : 2013.10.25.-31 - 장소 : 다낭시청 다나저농연극장 - 참가 : 대구 국제교류담당 외 1명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 대구국제대학생캠프에 다낭 대학생 10명, 담당자 1명 참가 - 일시: 8.10-15 - 장소: 영남대 외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대구 자매도시의 날 개최 - 기간 : 7.26-7.29 - 인원 : 85명(닝보 18, 청두 17, 히로시마 19, 방콕 11, 다낭 3 등) - 내용 : 치맥페스티벌 중 공연 2회, 대구 투어 및 문화체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대구국제대학생캠프 개최 - 기간 : 8.7-8.12 - 인원 : 91명(자매도시 36명 : 칭다오 5, 청두 5, 다낭 5, 타이베이 1 등) - 내용 : 해외-지역 대학생간 친선교류, 한국문화체험, 한국어 학습, 미니체육대회, 대구투어, 템플스테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자매우호협력도시 의료 관련 방문 - 기간: 11.17-11.22 - 인원 : 3명 - 내용 : 대구지역성형외과피부과 다낭점 개원식, 다낭 대구의료관광홍보센터 개소 업무 협의, 호찌민 의료관광 추진 사전조사

■ 강원도

- 강원도는 2007년 8월 9일 베트남 꽝닌성과 자매결연 체결
- 행정교류나 문화예술 교류보다 민간단체, 인적교류, MICE 관광교류가 많은 것이 특징임

년도	주요 교류 내용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 베트남 판닌성 한글강사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인원 : '08.04.10~06.26(14주간), 한림대 강사 2명 - 주요내용 : 한국어 초급 과정 및 전통체험(부채, 제기, 연 만들기 등) - 성 과 : 한국문화전파를 통한 양 지방정부간 실질적 교류 발판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2H 프로그램 연수생 영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인원 : '08.4.25~10.16, 1명(N. 티투이 로안) - 주요내용 : 국제화재단 시행 K2H 연수생 영입, 부서별 순환근무 - 성 과 : 양 지방정부간 인적교류를 통한 교류발판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 판닌성 하롱관광축제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인원 : 4.25~4.28, 2명 - 내 용 : 판닌성 하롱축제 주요 공식행사 참석 - 성 과 : 우호증진 및 관광교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 EATOF 대학생 여름캠프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인원 : 07.07~07.23(17일간), 2명 - 내용 : 한국문화체험, 관광지 견학, 초청방문 등 - 성과 : 관광협력 촉진과 관광분야 미래인재육성 및 회원지방정부 대학간 교류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지역 대학생 강원도 포럼 판닌성 참가자 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인원 : '08.08.05~08.15 / 3명 - 주요내용 : 미래 국가간 협력방안에 대한 토론 및 국가간 상호협력을 위한 대학생의 역할에 대하여 고찰해 보는 장을 마련, 국제적 안목과 역량 배양 - 성 과 : 참가국 대학생들간 상호이해 및 국제적 안목 배양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판닌성 한글강사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인원 : 04.01~05.28(8주간), 한림대 강사 2명 - 주요내용 : 한국어 초급 과정 및 전통체험(부채, 제기, 연 만들기 등) - 성과 : 한국문화전파를 통한 양 지방정부간 실질적 교류발판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EATOF 대학생 여름캠프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인원 : 07.06~07.23(18일간), 2명 - 내용 : 한국문화체험, 역사문화관광, 캠핑체험 등 - 성과 : 관광협력 촉진과 관광분야 미래인재육성 및 회원 지방정부 대학간 교류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지역 대학생 강원포럼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인원 : 07.07~07.15(9일간), 4명 - 내용 : 한글교육, 한국문화체험, 관광지 견학 등 - 성과 : 미래 국가간 협력방안에 대한 토론 및 상호협력을 위한 대학생의 역할에 대하여 고찰해 보는 장을 마련, 국제적 안목과 역량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회 EATOF 강원도 총회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인원 : 09.08~09.10(2박3일), 17명 - 내용 : 지사·성장 회의, 상임위원회, 관광전, 학술심포지엄 - 성과 : 관광교류를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추구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교류 실무협의단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인원 : 11.11~11.12 / 2명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랜드, 판닌성 반돈경제구역 복합리조트에 오픈 카지노 개설 추진

5. 한국·베트남인 설문조사 결과 분석

5.1 조사 개요

■ 조사목적

- 호찌민-경주엑스포 행사의 중심 역할에 대한 의견 조사
- 한국과 베트남간, 경북(경주)와 호찌민시 양 지역간 문화교류 발전 의향에 대한 의견 조사
- 향후 경북(경주)와 호찌민시 양 지역간 문화교류를 위한 사업 아이템 의견조사

■ 한국인

- 조사일자 : 2017. 12. 1 ~ 2
- 조사장소 : 호치민 현지 행사장 (응우옌후에거리, 923공원 일대)
- 조사방법 : 설문지 (자기기입방식)
- 유효표본 : 115부

■ 베트남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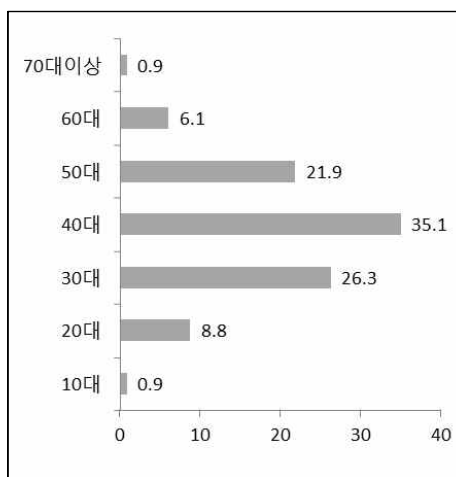
- 조사일자 : 2017. 12. 1 ~ 2
- 조사장소 : 호치민 현지 행사장 (응우옌후에거리, 923공원 일대)
- 조사방법 : 설문지 (자기기입방식)
- 유효표본 : 151부

5.2 한국인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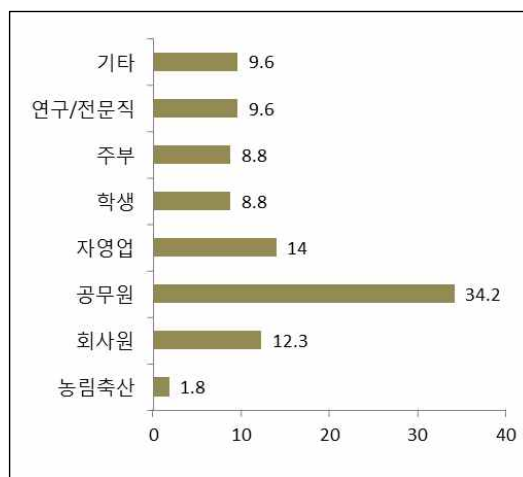
■ 설문응답자 인구통계특성

- 성별은 남성이 60.7%, 여성이 39.3%로 남성이 1.5배 가량 많음
- 연령은 40대 35.1%, 30대 26.3%, 50대 21.9% 순으로 나타남
- 직업은 공무원 34.2%, 자영업 14.0%, 회사원 12.3% 순으로 집계됨

구분				구분			
		N	%			N	%
성별	남	68	60.7	직업	농림축산	2	1.8
	여	44	39.3		회사원	14	12.3
	합계	112	100.0		공무원	39	34.2
연령	10대	1	0.9		자영업	16	14.0
	20대	10	8.8		학생	10	8.8
	30대	30	26.3		주부	10	8.8
	40대	40	35.1		연구/전문직	11	9.6
	50대	25	21.9		서비스직	1	0
	60대	7	6.1		판매직	0	0
	70대	1	0.9		무직	0	0
	70대이상	1	0.9		기타	11	9.6
	합계	114	100.0		합계	114	99.1



< 연령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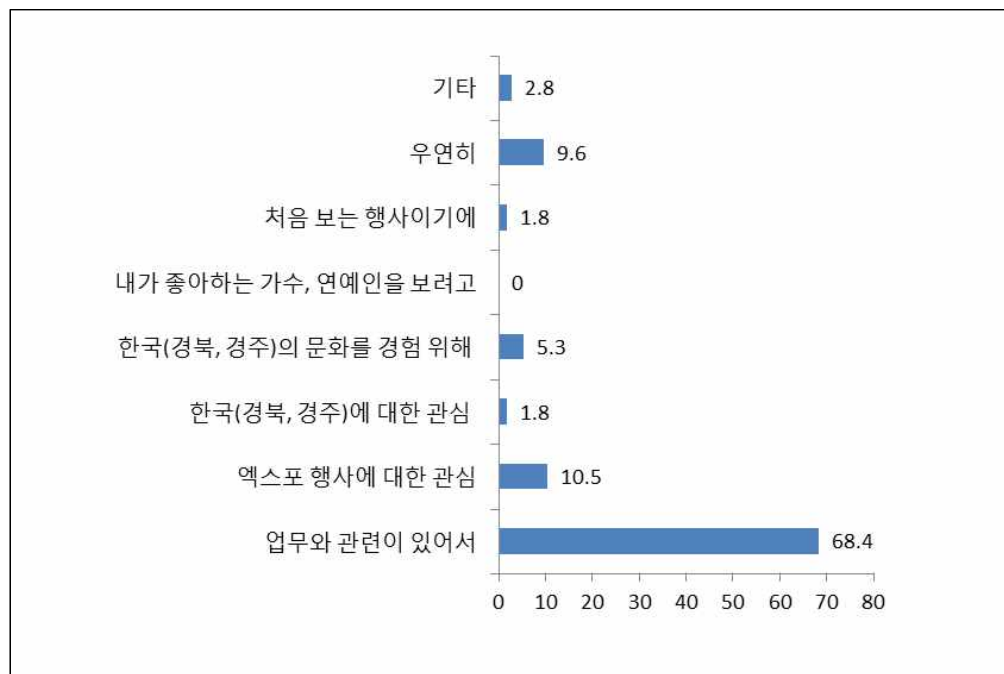


< 직업 (%) >

■ 엑스포 참가 동기

- 본 호찌민-경주엑스포를 방문한 동기로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응답이 가장 많은 68.4%로 나타남
- 그 외에 엑스포 행사에 대한 관심(10.5%), 우연히(9.6%) 순으로 나타남

구분	N	%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78	68.4
엑스포 행사에 대한 관심	12	10.5
한국(경북, 경주)에 대한 관심	2	1.8
한국(경북, 경주)의 문화를 경험 위해	6	5.3
내가 좋아하는 가수, 연예인을 보려고	0	0.0
처음 보는 행사이기에	2	1.8
우연히	11	9.6
기타	3	2.8
합계	11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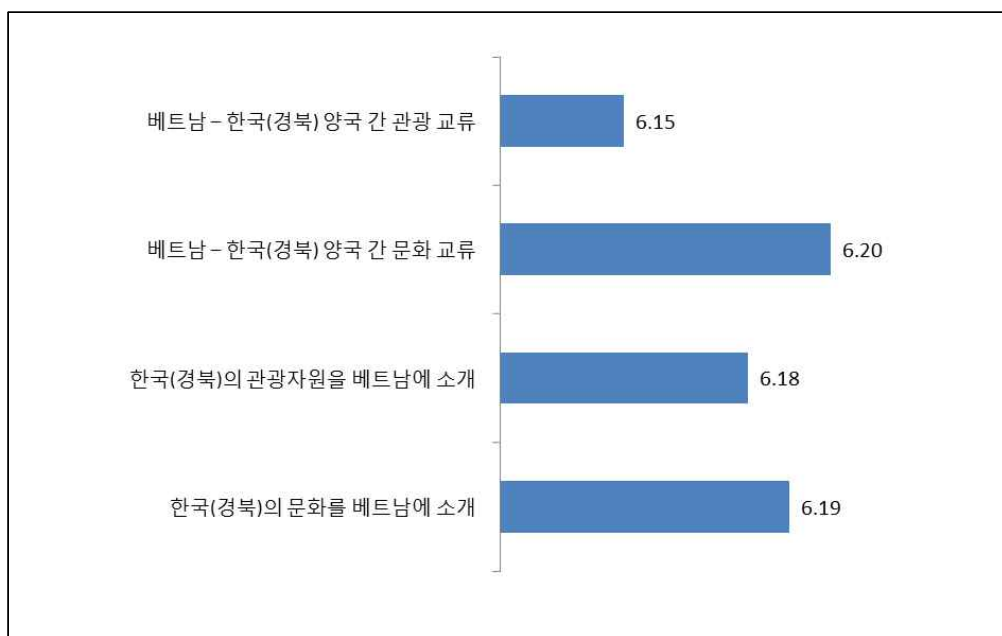


< 행사 참가 동기 (%) >

■ 엑스포의 중요한 역할

- 호찌민-경주엑스포의 역할 중 한베 양국간 문화교류가 6.20점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결과를 보임
- 한베 관광교류는 6.1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7점 만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결코 낮은 값은 의견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구분	N	평균 (7점 기준)	표준편차
한국(경북)의 문화를 베트남에 소개	115	6.19	1.123
한국(경북)의 관광자원을 베트남에 소개	115	6.18	0.894
베트남 - 한국(경북) 양국 간 문화 교류	115	6.20	1.053
베트남 - 한국(경북) 양국 간 관광 교류	115	6.15	0.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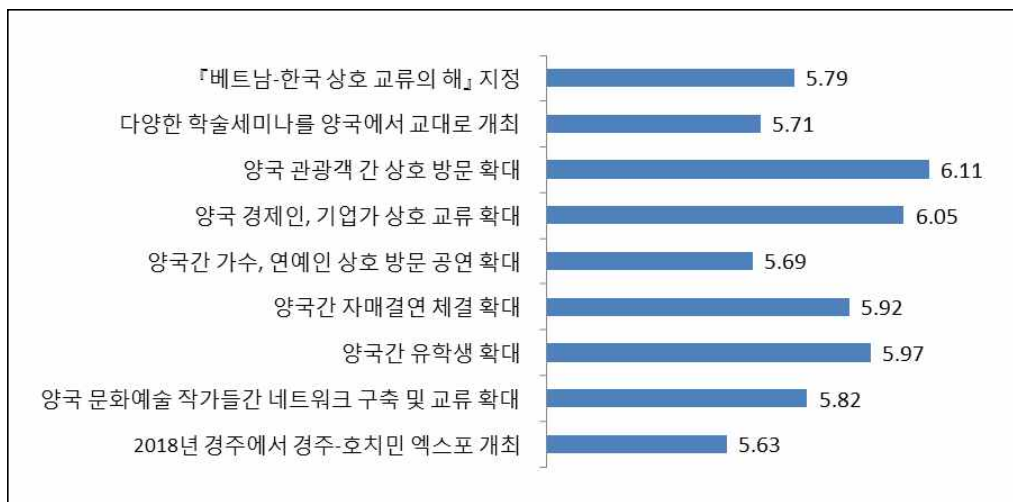


< 엑스포의 중요 역할 (7점 만점) >

■ 한-베 문화교류 활성화 방법

- 한국과 베트남 양국간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양국 관광객 간 상호 방문 확대가 6.1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앞서 엑스포 행사의 중요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관광 교류에 대한 중요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결과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임
- 이는 엑스포 행사가 문화교류 측면에서 더 중요하나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관광을 통한 상호 방문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라는 의견으로 풀이됨

구분	N	평균 (7점 기준)	표준편차
2018년 경주에서 경주-호찌민 엑스포 개최	115	5.63	1.392
양국 문화예술 작가들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	115	5.82	1.204
양국간 유학생 확대	114	5.97	1.156
양국간 자매결연 체결 확대	113	5.92	1.127
양국간 가수, 연예인 상호 방문 공연 확대	114	5.69	1.249
양국 경제인, 기업가 상호 교류 확대	115	6.05	1.169
양국 관광객 간 상호 방문 확대	114	6.11	1.059
다양한 학술세미나를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	115	5.71	1.330
『베트남-한국 상호 교류의 해』 지정	115	5.79	1.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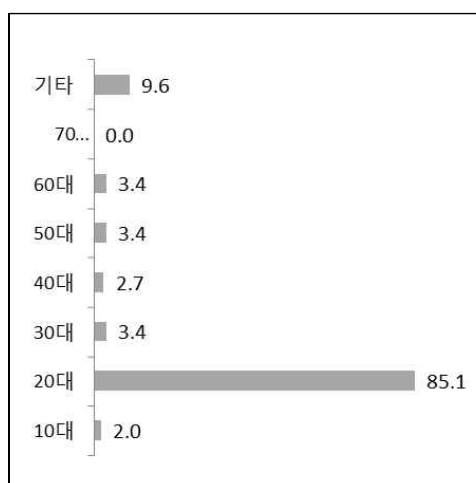
< 한-베 문화교류 활성화 방법 (7점 만점) >

5.3 베트남인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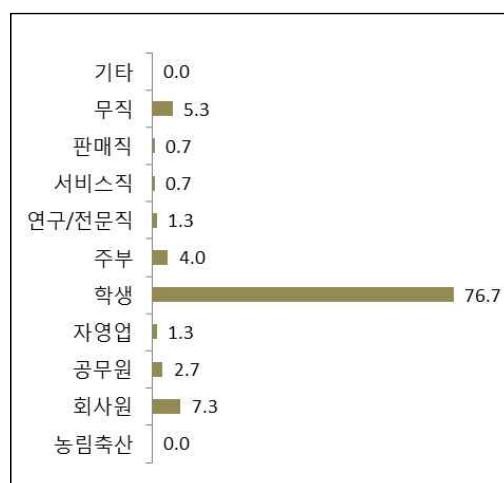
■ 설문응답자 인구통계특성

- 성별은 남성이 24.5%, 여성이 75.5%로 여성이 남성보다 3배 가까이 많음
- 연령은 20대가 85.1%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베트남의 젊은층일 수록 한국 문화에 대해 호의적임을 알 수 있는 결과임
- 직업은 학생이 76.7%로 대다수로 나타남

구분		N	%	구분		N	%
성별	남	37	24.5	직업	농림축산	0	0.0
	여	114	75.5		회사원	11	7.3
	합계	151	100.0		공무원	4	2.7
연령	10대	3	2.0		자영업	2	1.3
	20대	126	85.1		학생	115	76.7
	30대	5	3.4		주부	6	4.0
	40대	4	2.7		연구/전문직	2	1.3
	50대	5	3.4		서비스직	1	0.7
	60대	5	3.4		판매직	1	0.7
	70대이상	0	0.0		무직	8	5.3
	합계	148	100.0		기타	0	0.0
					합계	150	100.0



< 연령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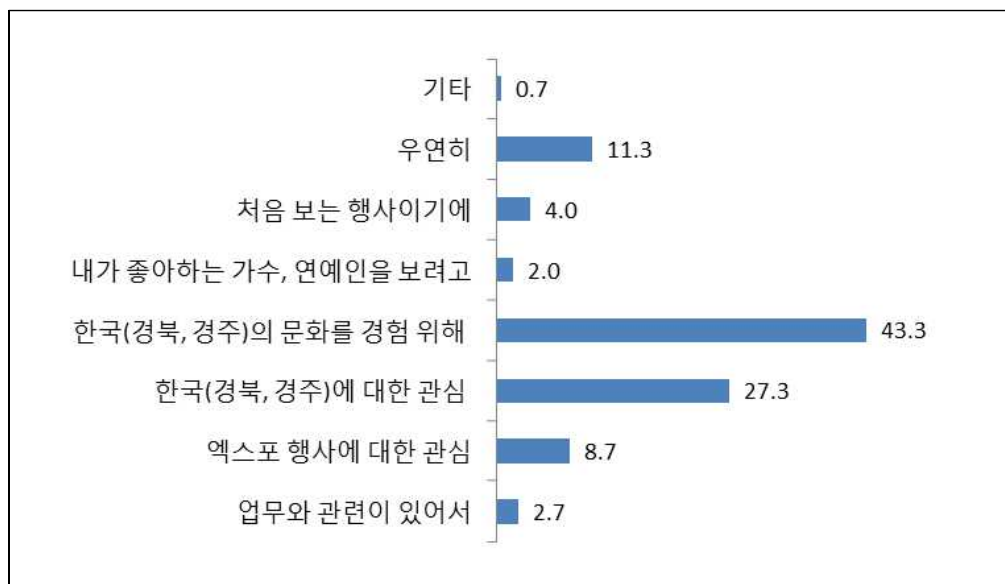


< 직업 (%) >

■ 엑스포 참가 동기

- 호찌민-경주엑스포를 방문한 동기 중 한국(경북, 경주)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라는 응답이 43.3%로 가장 많았음
- 그 뒤를 한국(경북, 경주)에 대한 관심 27.3%, 우연히 11.3% 등으로 나타남
- 결국 호찌민-경주엑스포를 통해 한국(경북, 경주)의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이를 경험하고자 하는 의향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구분	N	%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4	2.7
엑스포 행사에 대한 관심	13	8.7
한국(경북, 경주)에 대한 관심	41	27.3
한국(경북, 경주)의 문화를 경험 위해	65	43.3
내가 좋아하는 가수, 연예인을 보려고	3	2.0
처음 보는 행사이기에	6	4.0
우연히	17	11.3
기타	1	0.7
합계	1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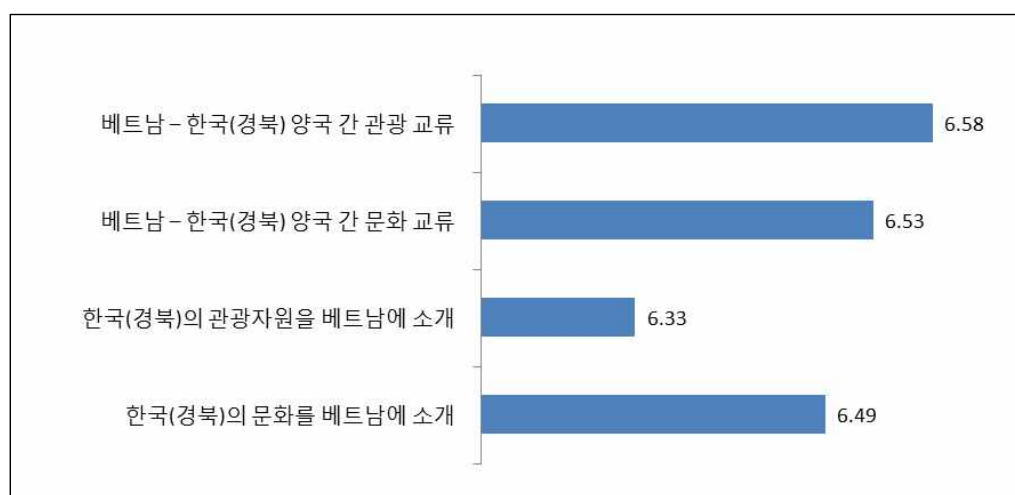


< 엑스포 참가 동기 (%) >

■ 엑스포의 중요한 역할

- 호찌민-경주엑스포의 역할 중 한국과 베트남간 관광교류에 대한 중요도가 6.5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뒤를 한국과 베트남간 문화교류가 6.53점, 한국(경북) 문화를 베트남에 소개가 6.49점 등으로 나타남
- 이 결과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한국인은 문화교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베트남인은 관광교류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았음
- 이렇게 높게 응답한 이유로 베트남 젊은층의 한국 방문 의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구분	N	평균 (7점 기준)	표준편차
한국(경북)의 문화를 베트남에 소개	151	6.49	0.738
한국(경북)의 관광자원을 베트남에 소개	151	6.33	0.854
베트남 - 한국(경북) 양국 간 문화 교류	151	6.53	0.755
베트남 - 한국(경북) 양국 간 관광 교류	151	6.58	0.724



< 엑스포의 중요한 역할 (%) >

■ 한-베 문화교류 활성화 방법

- 한국과 베트남 양국간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양국 관광객 간 상호 방문 확대가 6.6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같은 결과로서, 양국간 관광객 교류가 증가되는 것이 본 엑스포 행사를 지속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음

구분	N	평균 (7점 기준)	표준편차
2018년 경주에서 경주-호찌민 엑스포 개최	151	6.59	.557
양국 문화예술 작가들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	151	6.59	.603
양국간 유학생 확대	151	6.56	.607
양국간 자매결연 체결 확대	150	6.54	.631
양국간 가수, 연예인 상호 방문 공연 확대	149	6.52	.684
양국 경제인, 기업가 상호 교류 확대	151	6.44	.726
양국 관광객 간 상호 방문 확대	151	6.62	.631
다양한 학술세미나를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	151	6.44	.718
『베트남-한국 상호 교류의 해』 지정	151	6.46	.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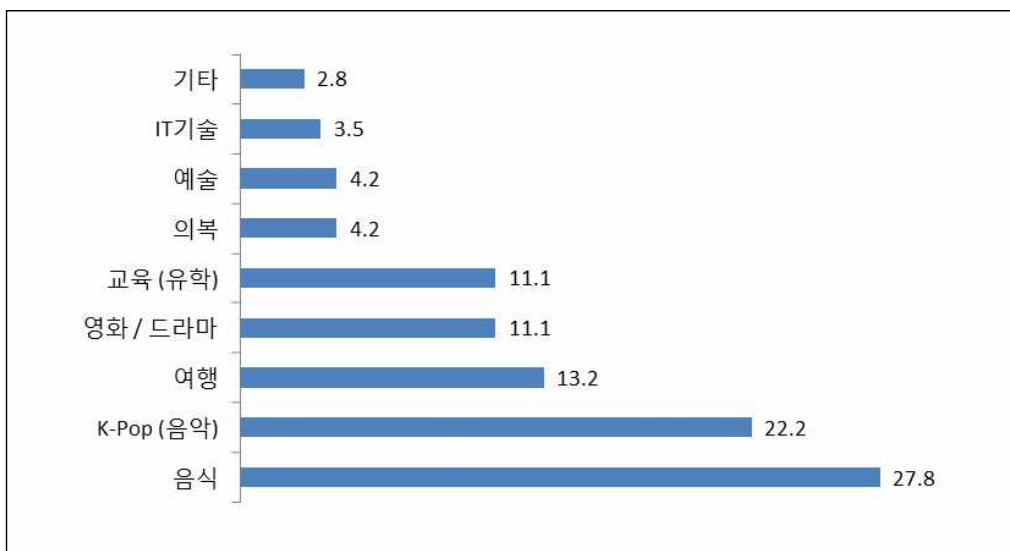


< 한-베 문화교류 활성화 방법 (7점 만점) >

■ 평소 관심이 있는 한국의 문화콘텐츠

- 베트남인은 한국의 문화 중 음식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다음으로 K-Pop, 여행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음식을 가장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로는 K-Pop이 가수와 관람객이라는 다소 일방향적인 특성을 지니는데 반해 음식은 본인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유추가 가능함

구분	N	%	비고
음식	40	27.8	1순위
K-Pop (음악)	32	22.2	2순위
여행	19	13.2	3순위
영화 / 드라마	16	11.1	
교육 (유학)	16	11.1	
의복	6	4.2	
예술	6	4.2	
IT기술	5	3.5	
기타	4	2.8	



< 평소 관심이 있는 한국의 문화콘텐츠 (%) >

5.4 분석결과 및 시사점

■ 설문응답 계층

- 한국인 : 40대(35.1%), 공무원(34.2%) 응답율이 가장 높음
- 베트남인 : 20대(85.1%), 학생(76.7%), 응답율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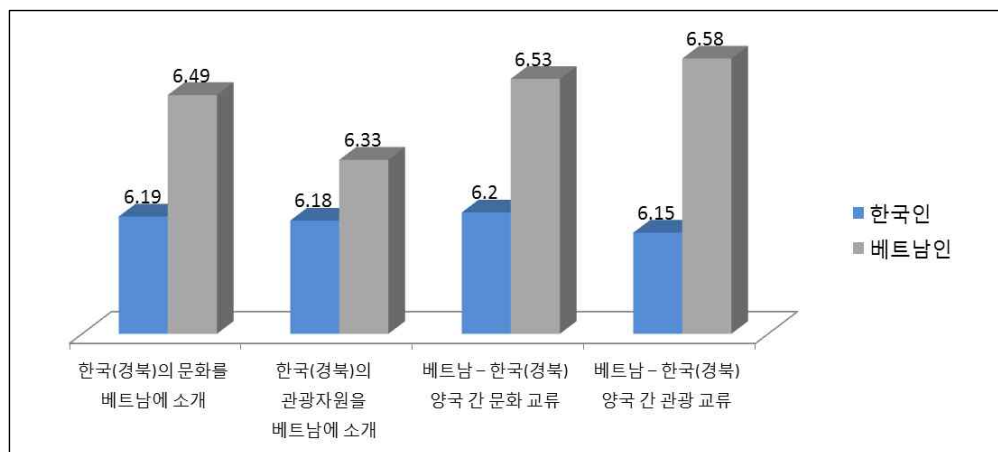
■ 엑스포 참가 동기

- 한국인 : 업무(68.4%) > 행사 관심(10.5%) 順
- 베트남인 : 한국문화 경험(43.3%) > 한국 관심(27.3%) 順

■ 엑스포의 중요 역할

- 한국인 : 1순위(문화교류), 2순위(한국문화 소개) 順
- 베트남인 : 1순위(관광교류), 2순위(문화교류) 順

구분	한국인	베트남인
한국(경북)의 문화를 베트남에 소개	6.19	6.49
한국(경북)의 관광자원을 베트남에 소개	6.18	6.33
베트남 - 한국(경북) 양국 간 문화 교류	6.20	6.53
베트남 - 한국(경북) 양국 간 관광 교류	6.15	6.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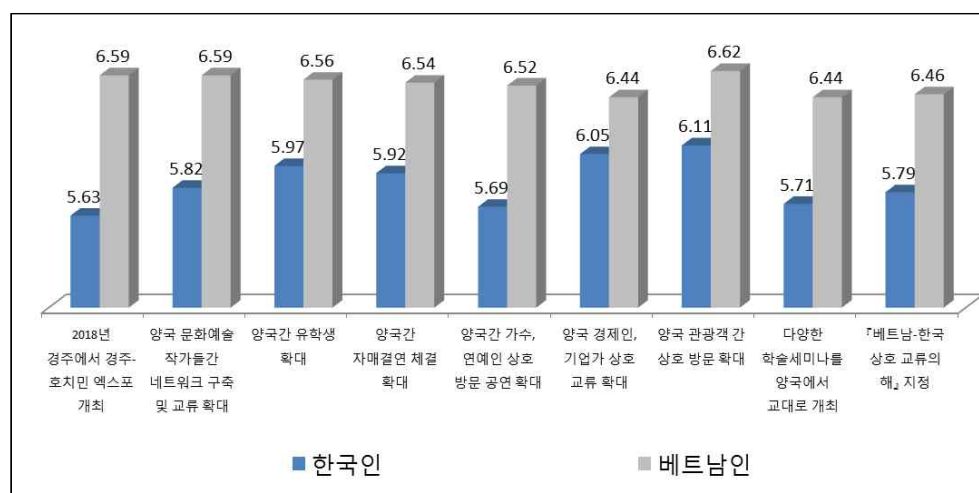


< 엑스포의 중요 역할에 대한 한국인-베트남인 비교 (7점 만점) >

■ 한-베 문화교류 활성화 방법

- 한국인 : 1순위(한베 상호 방문확대), 2순위(경제인 교류) 順
- 베트남인 : 1순위(한베 상호 방문확대), 2순위(문화예술인 교류) 順

구분	한국인	베트남인
2018년 경주에서 경주-호치민 엑스포 개최	5.63	6.59
양국 문화예술 작가들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	5.82	6.59
양국간 유학생 확대	5.97	6.56
양국간 자매결연 체결 확대	5.92	6.54
양국간 가수, 연예인 상호 방문 공연 확대	5.69	6.52
양국 경제인, 기업가 상호 교류 확대	6.05	6.44
양국 관광객 간 상호 방문 확대	6.11	6.62
다양한 학술세미나를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	5.71	6.44
『베트남-한국 상호 교류의 해』 지정	5.79	6.46
평균	5.85	6.53



■ 시사점

- 엑스포 개최가 한국(경북, 경주)의 문화를 일회성으로 알리는 행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문화교류와 관광교류로 확대되어야 함
- 즉, 상호 공감대를 이루는 분야(예 : 음식, K-Pop 등)에서 시작하여 문화교류와 관광교류가 지역 활성화로 구체화시켜 나가는 후속 작업이 필요함

6. 관계자 의견수렴 분석

6.1 행사 관계자 인터뷰 결과

■ 조사목적

- 한국과 베트남간, 경북과 호찌민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선행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
- 양 지역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역점 추진할 사업 아이টে에 대한 의견 청취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12. 1 ~ 12. 2
- 조사장소 : 9.23공원 일대
- 조사대상 : 엑스포 행사 관계자, 공무원 10명
- 조사방법 : 비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인터뷰 조사 실시

■ 조사결과 개진의견

① 양 지역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선행 필요사항

-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이므로 이념과 역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경제적 성과가 선행되어야 문화교류도 활성화될 것임
-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선결되어야 함
- 베트남의 국력이 한층 상승되어야 한국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일 것임
- 일회성이 아닌 작은 행사도 지속적으로 자주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해야 함
- 한국인의 베트남에 대한 인식이 “그저 못하는 국가”로 한정되어 있어 이런 선입견을 해소해야 함
- 스포츠, 대학간 교류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함

- 양국 담당 공무원을 교육하거나 전문가에게 맡겨야 함
- 양국간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사전에 구축해야 함
- 한국 및 경북내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함
- 문화교류를 경제적, 수익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됨
- 경북 지자체와 베트남 도시간 자매결연 확대 필요
- 베트남은 정치행정 시스템이 한국과 달라 행정교류 차원은 한계가 있고 민간차원의 교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양 지역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역점 추진할 사업 아이템

- 한국의 강점이고, 베트남인이 좋아하는 한국의 K-Pop을 적극 활용해야 함
-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함
- 베트남 안에 한국어 수요가 있는 만큼 한글을 무상으로 가르쳐주는 서비스 제공 필요
- 경북 관광상품을 만들어 베트남인을 팸투어에 유치하자
- 베트남 학생을 경북에 많이 유치해서 졸업 후 경북을 홍보하게 하자
- 외교, 문화교류 분야 전문가를 육성하고 확보해야 함
-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문화접촉의 기회를 늘리자
- 베트남 안에서 한류 공연을 개최 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단일 창구를 마련하자 (예: 한인회, 영사관, 기타 전문기구)
-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중요함
- 언어교류를 통해 양국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음
- 베트남은 기록문화가 발달하였고 독특한 박물관(예 : 아오자이박물관, 여성박물관 등)이 있으므로 이를 한국과 교류하는 것도 좋을 것
- 한국과 베트남이 지닌 공통정서(예: 흰색 옷, 개고기 문화, 춤과 노래를 사랑하는 정서)를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6.2 중간보고회 개선의견

■ 과업 추진방향

-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일회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되고, 한국과 경북을 해외에 홍보하고 그 결실을 경북에서 구체적으로 맺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천 년 경주의 역사와 문화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루는 원류라고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주의 문화만으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음
- 경주엑스포공원의 본래 위상을 강화하고 세계문화를 국내에 소개하고, 이를 수익으로 연결하거나 외래관광객을 유치하는 등의 성과 제고 방안을 찾아야 함

■ 문화교류 활성화 사업 아이템

- 호찌민-경주엑스포 행사장을 찾아 온 수많은 베트남의 젊은층을 미래 경북의 고객으로 유치해 낼 방안을 찾아야 함
- 경주엑스포공원이 향후에도 문화를 만들어 제공하는 기능에서 탈피, 앞으로는 세계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지는 플랫폼의 기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으로 판단됨
- 세계문화엑스포를 거행한 태국, 터키, 베트남의 공연팀들이 경주엑스포공원을 찾아와 자국의 문화와 예술을 공연하는 청사진이 요구됨
- 단순한 양 지역의 오피이언 리더나 정치 지도자들의 교류, 왕래에서 그치면 안 되고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로 연결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사업화 또는 정책 아젠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6.3 시사점

- 문화교류가 단순히 친선 관계의 유지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동 발전'이나 지역 활성화에 유익한 방향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음
- 과거 세계화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상호친선 도모가 교류의 근

간을 이루었으나,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등 세계 정치·경제 질서의 개편과 더불어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 시대의 도래로 도시간의 협력 및 연대가 요구되면서 통상·상호투자·관광객 유치·공동이익 등 실리추구 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임

- 엑스포 행사 개최 이후 양 국 또는 양 지역간 교류협정 체결, 행정교류 혹은 인적교류(공무원 상호 파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거나, 경제적 성과가 미미하다거나, 일방적인 교류 추진으로 기대만큼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질적 수준의 제고를 통한 국제 문화교류의 활성화와 더불어 이러한 성과를 지역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연계하려는 노력이 요청됨
-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화교류·청소년 교류 등 자치단체 차원의 비정치적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관 주도 교류를 벗어나 일반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지역 외교를 추진함으로써 교류의 성과가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양 지역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필요한데 베트남이 지니고 있는 기록문화, 이색적인 박물관, 그리고 한국인과 공통점이 있는 의식주 문화에서 소재를 발굴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콘텐츠 기획, 홍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행정이 주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위탁하는 방안도 필요함

7. 종합분석

구분	분석결과	시사점
2017엑스포 결과 및 성과	· 2017호찌민-경주엑스포는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성과를 성취함	· 문화교류가 장래 관광 등 실질 성과로 실현하는 방안 필요 · 네트워크 구축, 전문가 양성, 지원 조직 구축 등 대처 필요
한-베트남 문화교류 실태	· 1992년 한베트남 외교관계 수립 이후 경북과 베트남 타이응우옌성간 자매결연 체결 · 점차 국제문화교류 방식, 주체가 다양화되는 추세	· 경북의 강점인 새마을운동과 연계한 문화교류 방안 모색 · 문화교류 전문 인력 육성 및 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
국내 국제문화교류 현황 분석	· 부산은 양국간 공동유산으로 조선 통신사 행렬을 유네스코에 등재 · 매년 축제에 일본 공연단 유치 · 2010년 이후 서울 등 광역시도 단위의 베트남 문화교류 증가 추세	· 외국인과 함께 각국의 음식·문화·전통 등을 교류하고 체험하는 축제 개최 · 경북의 특색이 있는 문화교류 아이템 개발
국내 유사사례 분석	· 부산은 양국간 공동유산으로 조선 통신사 행렬을 유네스코에 등재 · 매년 축제에 일본 공연단 유치	· 문화교류가 경북 방문 성과를 낼 수 있는 동인이 필요
한국-베트남인 의견조사 결과 분석	·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으려면 관광교류 확대 성과가 필요	· 베트남이 지닌 독특한 문화유산을 콘텐츠화 추진 · 관 주도에서 민간 참여형 문화교류 방안 수립
관계자 의견수렴 분석	· 베트남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역사, 음악, 음식 등 공통분모 활용한 설득 필요	· 베트남이 지닌 독특한 문화유산을 콘텐츠화 추진 · 기획, 교류 전문가 활용 추진 · 공무원에 자질 함양 교육 실시

◎ 경북의 정체성을 살린, 경북의 강점을 활용한 문화교류 아이템 확보

◎ 행정, 인력 왕래에서 실질적 문화교류로의 수준 제고 필요

제3장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1. 기본전략
2. 추진과제 도출
3. 분야별 추진사업(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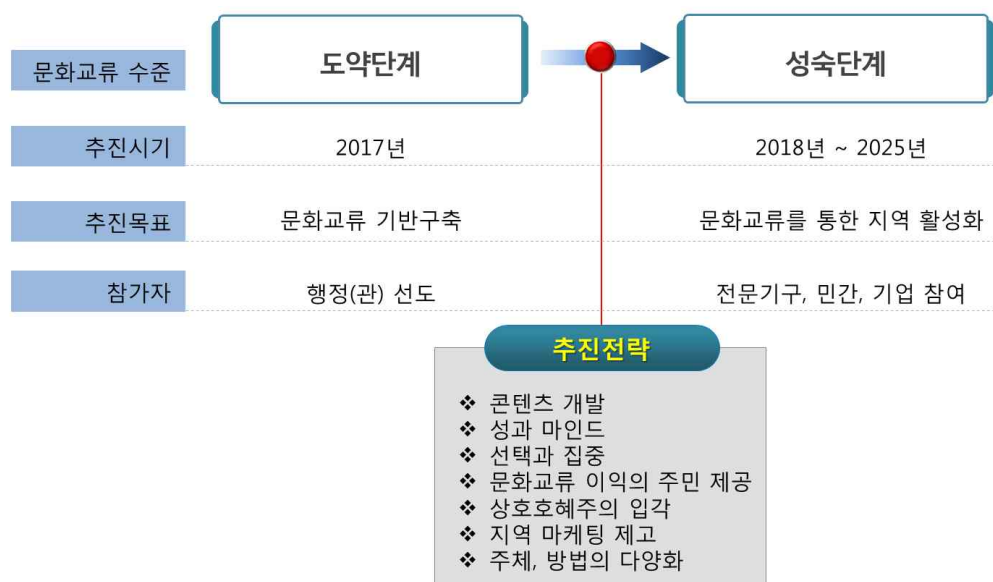
1. 기본전략

- FTA, 세계화 등 무한경쟁 시대에서 국제교류는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다른 나라나 지역과 상생발전과 소통을 위한 좋은 방안이 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6가지의 원칙(준비성, 차별성, 지역마케팅, 자율성, 다양성, 실용성)이 필요함⁴⁾
 - 준비성 :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과 비전 및 전략 수립
 - 차별성 :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차별적 우위에 있는 국제화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추진
 - 지역마케팅 : 새로운 지역이미지 창출, ○지역 홍보를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
 - 자율성 : 단체장의 신념, 공무원의 발상 전환 및 능력 개발
 - 다양성 : 관 주도가 아닌 민간부문의 자발적·주체적·창조적인 참여 보장
 - 실용성 : 성과중심의 국제교류 사업 추진
- 본 연구는 경북과 호찌민 양 지역간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관점에서 다음의 7가지 기본 전략을 제안함
- 첫째, 문화교류의 수준을 도약단계에서 성숙단계로 높이려면 차별화된 콘텐츠를 확보해야 함. 단순히 공무원 방문이나 유학생 확대 수준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국가, 다른 지역과 다른 차원의 문화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이러한 문화콘텐츠는 가급적 경북이나 경주에 공통적인 요소이자 베트남의 문화와 공통점을 지닌 요소일수록 훌륭한 콘텐츠로서의 성질을 갖출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지역 활성화를 염두에 둔 문화교류를 추진해야 함. 그동안 국내의 여러 지자체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국제 문화교류는 '친선 유지'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많은 것이 사실임. 물론 인적 교류가 뒷받침되어야 문화교류의 성과가 발휘되는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실제적 성과 측면에서 문화교류를 추구해야 보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즉, 실리적인 관점에서 지역 활성화와 연계해서 국제 문화교류를 추진해 나가야 함
- 셋째,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성공적인 문화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의해 성공적인 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 원래 국제교류는 특정 분야에 편협하지 않고, 다방면에 있어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4) 이정석(2009). 경남도와 한일해협 연안 현 간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국제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지역 활성화와 연계시킬 목적이라면, 성공사례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서 지역 전체에 파급효과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편이 바람직함

- 넷째, 국제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이익이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어야 함. 양 지역간 문화교류의 활성화는 주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문화를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체감할 수 있게 효용을 제공해 주어야 함
- 다섯째, 상호 호혜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 상대방이 우호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먼저 우호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처럼, 문화교류의 활성화가 한쪽에게만 이익을 주는 편향적인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임
- 여섯째, 지역마케팅의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방문객이 다시 찾는 만족도 높은 지역이 되려면 마케팅을 통해 지역의 전체 자산가치(브랜드 가치 포함)를 높이고 차별적이고 매력적인 지역이미지를 창출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상호 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지역 간 연계에 의한 공동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일곱째, 다양한 주체와 방법을 개발해야 함. 오늘날 국제교류협력의 개념은 과거의 국제통상이나 외교관계와 같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선린우호관계 증진뿐만 아니라 사람, 정보, 우수사례, 아이디어 등을 교환하는 훨씬 폭넓고 다양한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음(김판석, 2010)



2. 추진과제 도출

2.1 사업 아이템 선정과정

■ 아이템 탐색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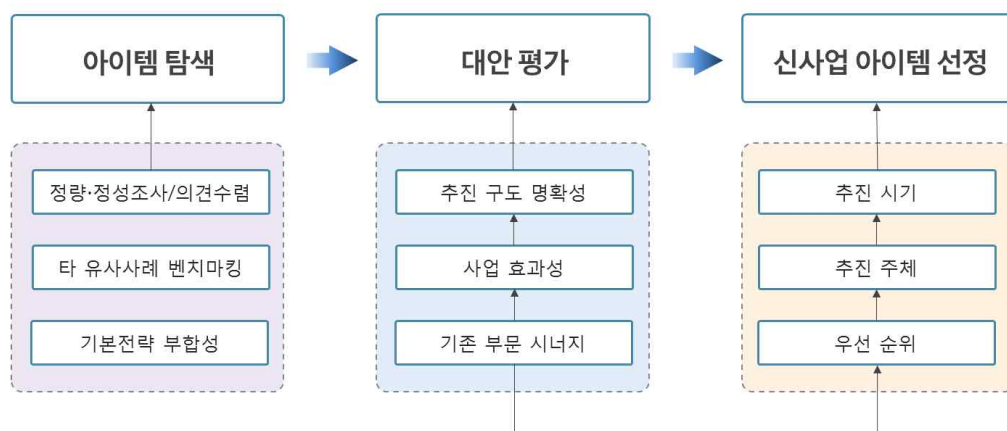
- 각종 정량조사, 정성조사를 통해 나타난 경북과 호찌민의 문화교류 흐름을 토대로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템 발굴
-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을 토대로 경북에 도입 가능한 문화교류 사례 벤치마킹
- 앞서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추진전략과의 부합성을 기준으로 발굴

■ 대안 평가 단계

- 발굴된 아이템을 대상으로 추진 구도의 명확성, 사업 효과성, 기존 부문과의 시너지 발생 가능성을 토대로 대안을 평가함
- 공공, 민간, 전문기구 등 추진구도가 명확하고, 대안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가 기대되는 아이템, 기존 경북이 추진해 온 문화교류 기반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대안을 평가함

■ 신사업 아이템 선정 단계

- 추진 시기, 주체, 우선 순위를 토대로 최종 신사업 아이템을 선정함



2.2 사업 아이템 선정결과

■ 유형

- 신사업 아이템의 성질을 기준으로 콘텐츠, 홍보, 인프라 등으로 구분
 - 콘텐츠 : 양 지역간 문화교류를 위한 콘텐츠, 유치 프로그램 등
 - 인프라 : 양 지역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통 시스템, 전문기구, 인력 교육 등
 - 민간 참여 : 지역 주민, 민간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각종 사업

■ 시기

- 우선순위, 연쇄 파급효과를 고려 단기 사업과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
-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도 중요성을 감안 단기부터 추진하도록 감안

■ 주체

- 공공, 민간이 협력해서 국제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도록 설정
- 공공은 경상북도청, 민간은 경주엑스포공원이 중심이 되도록 하였으나 이는 다시 기초자치단체(시군), 주민, 기업, 대학 등 연계협력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입체적인 구조를 설정함

➡ 추진사업

분야	활성화 추진 10대 과제	추진주체			추진시기	
		도	시군	민간	단기	중장기
콘텐츠	양국 공동 문화교류 콘텐츠 개발	◎			●	
	베트남 관광객 필수 방문 관광명소 개발		◎	◎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성공사례 확산	◎			●	
	한베 국교정상화 30주년 대비	◎			●	
	베트남 MICE 수요 유치	◎	◎	◎		●
	재한 다문화 가정 참여 강화	◎	◎	◎		●
인프라	경주엑스포공원의 위상 재정립	◎		◎	●	
	호찌민-경북 교통 접근성 개선	◎		◎		●
	경북 국제교류센터 설립	◎				●
민간 참여	주민 참가 확대	◎	◎	◎	●	

3. 분야별 추진사업(안)

3.1 양국 공동 문화교류 콘텐츠 개발

■ 필요성

- 한국(경북)과 베트남(호찌민)이 문화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상호 주고 받고, 공통의 목표가 되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양 지역 공통의 문화유산과 정신이 가미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공동관심 사항을 다른 분야로 확장시키는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필요

■ 사업개요

- 추진시기 : 단기
- 추진주체 : 경상북도
- 주요 내용
 - 경북과 호찌민 양 지역간 공동 문화콘텐츠로 삼을 수 있는 콘텐츠 개발
 - 개발된 콘텐츠는 양 지역이 상호 교류 전시회 개최, 공동 문화상품 등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활용

■ 사업내용

-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으로 개발 가능한 문화콘텐츠는 음식과 의복 분야임
- 1997년 충북 청원군 소로리 후기구석기 유적지에서 발굴된 볍씨는 탄소연대측정 결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1만 3000년 ~ 1만 5000년 전의 볍씨로 밝혀짐



< 소로리 볍씨 >

- 이는 한반도가 벼농사의 원류이며 한반도에서 시작된 벼농사가 북방과 남방으로 퍼져나갔는데 이 중 베트남에게도 한반도의 벼농사가 전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⁵⁾



< 한반도의 벼농사 전파도 >

- 이는 오랜 역사 동안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아 온 쌀 음식과 베트남의 쌀 음식이 공동의 유산이라는 의미이기도 함



< 한국의 밥 >



< 베트남의 쌀국수 >

5) 세계의 벼 종자는 자포니카 아니면 안남미인데, 한반도에서는 이들 자포니카와 안남미가 동시에 발견됨으로써, 한반도가 세계 벼농사의 종주국임을 입증하는 결과가 나왔고, 세계적인 고고학 개론서 '현대 고고학의 이해(Archaeology)'에 한국이 쌀의 기원지로 명시되기에 이름 (조선일보, 2017.05.07일자)

- 그리고 음식은 식재료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지역의 음식문화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한국과 베트남은 수저를 이용해 음식을 섭취하는 저식문화권에 속함

🔍 세계 음식문화권 분류

분류 기준	주요 내용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 문화권 : 유럽, 북미, 중동 · 쌀 문화권 :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 옥수수 문화권 : 중남미 · 서류(감자, 고구마 등) 문화권 : 동남아, 남태평양 국가
식사 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식(손) 문화권 :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 저식(수저) 문화권 :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 포크 문화권 : 서양 유럽



< 한국의 식기 - 수저 >



< 베트남의 식기 - 수저 >

- 한국과 베트남은 백의를 즐겨 입은 민족으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음



< 한국의 백색 한복 >



< 베트남의 백색 아오자이 >

- 이러한 공통 문화유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콘텐츠 개발 사업이 가능함
 - 경주에서 한-베트남 쌀음식 페스티벌 교환 개최
 - 아시아의 벼 농사 문화권, 수저 문화권의 국가들과 연계한 교류 전시회 개최
 - ICT 콘텐츠, 방송 콘텐츠 등의 형태로 공동 개발

➡ 한국-베트남 쌀 콘텐츠 개발방안

구분	주요 내용
음식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쌀, 베트남의 쌀국수 퓨전 메뉴 개발 · 경주엑스포공원 내 식당 또는 Take Out 도시락 등 형태로 판매
축제 이벤트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밥, 쌀국수 등 쌀 음식 페스티벌 개최 - 엑스포 기간 중 연계 개최 · 세계 숟가락 페스티벌 개최
전시회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을 주제로 한 한-베 상징 조형물 제작 설치 · 한-베 쌀문화 유물 교류 전시회 개최 · 전세계 숟가락 예술품 전시회 개최 · 한복-아오자이 전시회 개최
ICT 콘텐츠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베트남 쌀 농경의 역사와 농촌의 재배 과정을 VR로 제작



< 쌀 페스티벌 사례 (미국 조지아주) >



< 숟가락 예술품 >



< 쌀 상징 조형물 >



< VR >

3.2 베트남 관광객 필수 방문 관광명소 개발

■ 필요성

- 현재 베트남 관광객이 경북을 방문하더라도 필수적으로 방문을 권유할 만한 명소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서울의 인사동, 부산의 Biff 영화의 거리처럼 베트남 관광객이 필수적으로 방문하는 경북내 관광명소 육성 추진 필요

■ 사업개요

- 추진시기 : 단기
- 추진주체 : 봉화군, 민간
- 주요 내용
 - 봉화군 화산이씨 충효당을 베트남 관광객이 필수로 찾는 역사 교유콘텐츠 명소로 구축
 - 주변 봉화군 농촌과 고택(닭실마을), 국립수목원 등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발

■ 사업내용

- 대구광역시의 경우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이 오면 반드시 방문하는 관광명소(모명재, 녹동서원)를 보유하고 있어 효과적인 유치활동이 가능함



< 모명재 >



< 녹동서원 >

➡ 대구의 중·일 관광객 필수 관광코스 (모명재, 녹동서원)

대상	관광명소	특징
중국인 관광객	모명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명재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원병으로 왔던 명나라 장수 두사충(杜師忠)이 귀화한 후 그의 후손들이 1912년에 세운 것 · 두사충의 호는 모명으로 중국의 두릉(杜陵)이 고향 · 전쟁이 끝난 후 두사충은 대구에 정착하면서 중앙공원 터를 하사 받았는데 경상도 감영이 대구에 옮겨오자 그 땅을 내어놓고 현재의 계산동 일대 두씨들의 거주지를 옮김 · 중국에 두고 온 부인과 형제들이 생각나 명나라를 생각한다는 뜻으로 동네 이름을 대명동(大明洞)이라 붙이고 단을 쌓아 매월 초하루가 되면 관복을 입고 고국의 천자에게 배례를 함
일본인 관광객	녹동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진왜란 당시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휘하의 좌선봉장으로 참전하였다가 조선에 귀순 · 곽재우 등 경상도의 의병들과 함께 힘을 합쳐 일본군과 모두 78회의 전투를 치렀으며, 이때 전공을 벼슬을 받음 ·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 등 조선의 장수로서 큰 공을 세웠고 사후 녹동서원에 배향됨

- 경북에는 베트남의 리 왕조(1009~1225) 6대 황제 영종의 아들 이용상이 고려로 망명한 뒤 화산 이씨의 시조를 형성한 기록이 봉화군에 있음 ⁶⁾
 - 화산이씨의 시조인 이용상은 베트남 리왕조 7대 고종의 동생으로 추정
 - 이용상은 리왕조가 멸망하자 도피하다가 계절풍을 타고 황해도 화산에 도달
 - 그후 고려에 몽고군이 침입하자 격퇴시키고 그 공으로 화산 이씨를 하사 받음
 - 현재 화산이씨는 남한에만 약 260가구에 1천400명 가량 살고 있고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에는 시조 이용상을 모시는 사당(충효당)이 보전
 - 베트남에는 화산 이씨의 사원과 축제(매년 음력 3월 1일 개최)가 있음



< 문재인 대통령의 개막식 축사 >



< 충효당을 찾은 주한 베트남 대사 >

6) 음성신문 2017.11.22.일자, 중앙일보 2017.11.14.일자

- 특히 베트남을 방문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호찌민-경주엑스포 개막식 (2017.11.11.) 축하에서 봉화군의 화산 이씨를 언급하며 상호 교류가 깊은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음을 밝힘
- 이어 2008년 1월 4일에는 봉화군의 초청으로 주한 베트남 대사가 봉화군 충효당을 방문해 리왕조 이용상과 관련된 유일한 유적지를 베트남 국민들이 많이 방문하여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 봉화군 화산이씨 충효당 위치도 >

- 향후 충효당을 중심으로 베트남 관광객에게 베트남의 역사 교유콘텐츠를 구축하고, 주변 봉화군 농촌과 고택(닭실마을)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 화산이씨 충효당 명소화 방향

구분	특징
인프라 정비	· 접근로 확포장 · 주차장 확보
수용태세 정비	· 한베 우호관 : 역사문화 체험관, 영상홍보관, 충효교육관 · 화합의 마당 : 한베 전통정원, 한베 전통놀이 공간
콘텐츠 정비	· 안내해설 안내표지 설치
기타 정비	· 충효당 보수
연계 프로그램	· 농촌체험 : 수박 체험, 삼굿 체험 · 고택체험 : 닭실마을 · 산림체험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안내홍보	· 한국관광공사 협력 해외 홍보

3.3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성공사례 확산

■ 필요성

- 양 지역의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 사업의 우선순위 측면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업 추진이 현실적
- 양 지역간 성공적으로 수행한 그동안의 경험과 성공사례에 토대로 문화교류 수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

■ 사업개요

- 추진시기 : 단기
- 추진주체 : 경상북도
- 주요 내용
 - 격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엑스포 행사에 베트남 문화콘텐츠 전시 추진
 - 신규 개발보다 기존 성공적으로 구축된 콘텐츠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양 지역간 교류 추진

■ 사업내용

- 경북과 호찌민은 대형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양 지역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 필요
- 지금까지 경북과 호찌민 간 그동안의 수행한 사업 중 대중예술과 전통무용 공연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이 사업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
- 경북과 호찌민 두 지역 간에 통용되는 공통적인 콘텐츠를 '평화'의 가치를 설정하고 대중예술과 전통예술에 접목할 필요가 있음
- 즉, (가칭)「평화음악예술」로 설정해 평화 K-Pop 공연, 천년 사랑 이야기 <플라잉>, 평화 기원 양국 전통무용 공연 등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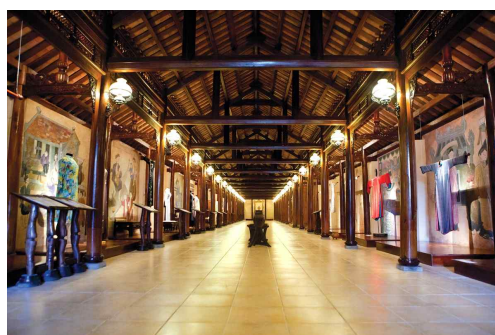


< 한국의 K-Pop >



< 플라잉 >

- 한편 베트남은 기록문화가 발달한 국가로서 호찌민에 있는 아오자이박물관, 여성박물관은 독특한 콘텐츠를 지닌 박물관임



< 호찌민 아오자이 박물관 >



< 호찌민 여성박물관 >

- 추가적인 사업비가 없이도 이들 시설을 활용해 경북과 문화교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3.4 베트남 MICE 수요 유치

■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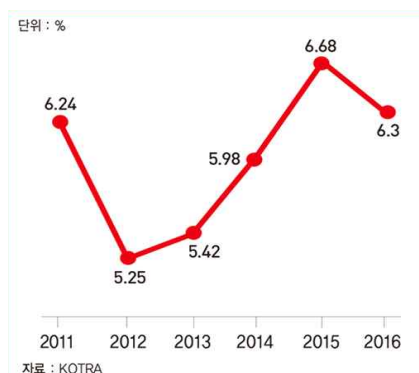
- 베트남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기업회의 및 연수 등 증가하는 MICE 수요를 적극 유치 필요
- MICE는 외화 가득올이 높고, 경제효과가 높아 경북으로의 MICE 유치를 통해 지역 활성화 달성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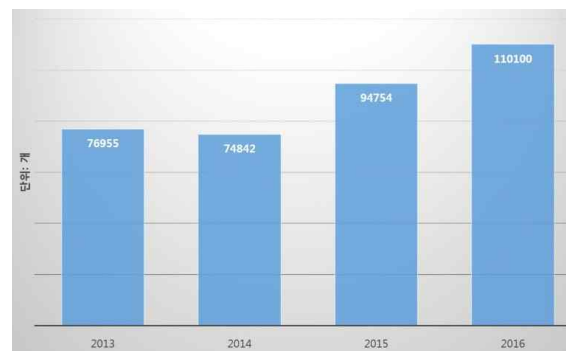
- 추진시기 : 중장기
- 추진주체 : 경상북도, 경주, HICO, 지역별 유니크 베뉴
- 주요 내용
 - 베트남 경제, 학술단체 등 회의를 경북에 유치
 - 특히 MICE 인프라가 우수한 경주 경주엑스포공원, HICO, 신라 밀레니엄파크 등에 유치 추진

■ 사업내용

- 현재 베트남의 인구는 약 1억명이고 연평균 6%대의 성장세를 지속 이어나가고 있음



< 베트남 GDP 증가율 (연도별) >



< 베트남 신규 등록 기업체 수 (연도별) >

- 2012년 말 기준 베트남에 소재한 기업체 수는 총 52만여 개사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7년 12만 5천여 개 보다 약 4배가 증가한 것임
- 이들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수는 2007년 660만명에서 2012년 1,090만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함
- 향후 베트남의 기업체 수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직원들의 복지와 인센티브 차원의 MICE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국내 경기도는 베트남의 마이스를 유치하기 위한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음

➡ 타 지자체의 베트남 MICE 시장 공략 사례

행사명	추진 사례	주최
경기 MICE 로드쇼 (‘17.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호치민·다낭 · 경기도측 : 수원시와 안산시, 뿌띠프랑스, 대명리조트, 허브아일랜드, 페인터즈 히어로 관계자 등 14명 · 베트남측 : 호치민/다낭 지역의 현지 마이스 여행사와 항공사 관계자 70명 참가 · 진행 : 베트남 마이스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 홍보와 1:1 비즈니스 미팅 실시 · 홍보 : 기업의 팀빌딩 프로그램을 대표 상품으로 홍보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합동 개최
제주 MICE&관광 설명회 (‘1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하노이 · 경기도측 : 제주관광공사, 제주컨벤션뷰로 · 베트남측 : 현지 여행사, 언론, 베트남 관광청 등 60명 · 진행 : 연 2,000명 베트남 관광객 제주유치 협약 체결 · 홍보 : 제주도의 아름다움, MICE 시설 홍보 	제주관광공사, 제주컨벤션뷰로 합동



< 경기 MICE 로드쇼 >



< 제주 MICE & 관광 설명회 >

- 현재 경북에는 MICE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경주의 HICO, 밀레니엄파크 등이 있음



< 경주 HICO >



< 경주 밀레니엄파크 >

- 그러나 경주를 방문하려는 베트남 MICE 관광객의 규모에 따라 작은 단위의 MICE 시설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발생함
- 특히 최근 경상북도 MICE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니크 베뉴(Unique Venue)를 지정 확대를 하고 있으므로 이들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함

➡ 경북지역 시골형 유니크 베뉴 선정 현황

시군	시설 명	비고
안동시	예움터마을	한국리모델링협회 건축대전 특선('15)
경주시	교촌마을	
청송군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연수원	
경주시	황룡원	
고령군	인빈관, 대가야문화누리, 예마을	
김천시	이화만리녹색농촌체험마을	
구미시	일선리문화재마을	



< 안동 예움터마을 >



< 경주 교촌마을 >

3.5 한-베 국교정상화 30주년 대비

■ 필요성

- 2022년 한베 국교정상화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국가 행사 공동 유치 추진
- 한국과 베트남의 국공립 단체의 문화예술 분야 전시·공연, 세미나, 회의 등을 경북 지역으로 유치 추진

■ 사업개요

- 추진시기 : 단기
- 추진주체 : 경상북도
- 주요 내용
 - 한-베트남 국교정상화 30주년 관련 미술, 공연, 심포지움/포럼 등 대형 행사 유치
 - 공공 미술 프로젝트 등 한-베트남 청소년이 참가하는 형태의 소규모 민간참여 프로젝트 추진

■ 사업내용

-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의 경우 서울과 도쿄, 부산 등지에서 기념행사, 공연, 학술대회, 교류행사 등이 행해진 바 있음

➡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 개최 사례 (2015년)

구분	주요 행사	장소
중앙기관	기념행사	웨스틴조선호텔(서울)
	"일본 백제 춤의 귀향"	국립극장 하늘극장(서울)
	국제 학술대회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의 한일관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지자체	자전거 대장정 이벤트 "두 바퀴로 달리는 新조선통신사"	서울-부산-쓰시마-시모노세키-오사카-교토-나고야-시즈오카-도쿄
중앙기관	한일현대미술교류전	국립현대미술관, 도쿄국립신미술관
민간	K-J 드라마, K-J Pop 공연, 기념행사	삿포로



<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 사례 >

- 2022년에는 한-베트남 국교가 정상화된 지 30주년을 맞는 해로서, 한국과 베트남 간 경제, 문화 교류가 활발한 상황에서 각종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전망됨
- 이때 국비로 진행되는 국공립 단체의 30주년 기념행사 중 일부 대형행사를 경북으로 유치 추진
 - 심포지엄, 문화예술공연 등을 경북(경주)로 유치
- 대형 행사 이외에도 다양한 소규모 공동제작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을 명소로 만드는 방안을 강구

➡ 소규모 공동제작 프로젝트 사례

구분	행사 명	주요 내용
미술	한불 공공미술 프로젝트 (2016년)	· 서울의 서래마을과 프랑스가 교류를 기념해 거리 일부를 타일벽화 제작을 공동으로 실시 · 참가희망 서울시민, 프랑인을 공모해 실시 · 프로젝트 이후 은행나무 정자는 미술의 명소로 탄생하였고, 매년 외국인들이 찾아와 이벤트를 개최 (크리스마스 행사)
공연	공공극장 프로젝트 (2010년)	· 부산-자매도시 양국의 배우가 합심해서 만드는 연극을 상연



< 서래마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례 >



< 부산-일본 자매도시 공동 연극 제작 사례 >

3.6 재한 다문화 가정 참여 강화

■ 필요성

- 베트남 이주 여성으로 구성된 다문화 가정을 포용함으로써 베트남인의 경북 이미지 개선
- 문화교류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인적인 교류 활성화, 양 지역간 이해 제고를 위한 다문화와 노동자 참여를 높이는 방안 필요

■ 사업개요

- 추진시기 : 중장기
- 추진주체 : 경상북도, 시군, 민간
- 주요 내용
 - 경주엑스포행사에 베트남의 날을 정해 베트남 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행사 개최
 - 베트남의 날에 이주여성들과 가족들이 모두 참여하는 소규모 이벤트 추진

■ 사업내용

- 경북은 베트남과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통해 많은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 결혼이주여성은 2014년 3월 기준 총 12만8072명으로, 베트남 출신은 3만 9144명인 30.5%에 이름
- 특히 경북은 결혼이주여성이 7,268명으로, 이 가운데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은 3,478명이며, 전국 평균보다 비율이 더 높음
 - 이렇게 경북에 결혼이주여성 중 베트남 여성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유교적인 사상을 갖추고 있어 시부모를 섬기고, 생활력이 강한 이미지 때문임
-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약 3천 5백명이라고 가정하면 2세를 합칠 경우 다문화 가정이 7천여 명에 달하므로 가족공동체 측면에서 양국교류의 확대가능성이 매우 크며, 향후 이들 문화교류의 가교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임

- 실제 2017호찌민-경주엑스포 행사에서 이들 베트남 이주여성 약 3~40여명이 통역도우미의 역할을 수행한 바 있음
- 경북에서는 2011년부터 결혼이주여성 부모를 초청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2015년부터는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음
- ➡ 경상북도의 베트남 여성 부모 초청행사 추진 실적

구분	주요 내용	비고
2011년	· 베트남과 캄보디아, 필리핀 등 3개국 출신 결혼이민여성 13명과 친정부모 22명이 상봉	
2012년	· 5개국 23명의 결혼이민여성 친정부모와 가족 등 100여 명	베트남 이주 여성 6명
2013년	· 6개국 17명 초청 (시군에서 추천) · 친정 부모 가족에게 도내 의료기관에서 무료 건강검진 제공 · 서울, 경북 관내 관광지 관광	베트남 이주 여성 3명
2014년	· 8개국 23명 초청 (시군에서 추천) · 친정 부모 가족에게 카네이션 증정, 편지 낭독 · 퓨전 극악단 공연 · 서울, 경북 관내 관광지 관광	베트남 이주 여성 5명



< 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행사 사례 >

- 그러나 여전히 경북 관내 지자체 단위에서는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주 여성이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가족 초청행사는 지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각 지자체마다 추진하는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행사를 경주엑스포행사의 베트남의 날을 정해 이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편 실시
- 베트남의 날에 이주여성들과 가족들이 모두 참여하는 소규모 이벤트(베트남 문화 전시회, 음악 공연)를 개최 추진

3.7 경주엑스포공원의 위상 재정립

■ 필요성

- 경주엑스포 일몰제, 지자체 선거 등 변화가 예상되는 환경을 감안하여 경주엑스포공원의 역할 재정립 추진 필요
- 특히 미래의 4차혁명 등을 대비하기 위해 경주엑스포공원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 요망

■ 사업개요

- 추진시기 : 중장기
- 추진주체 : 경상북도, 민간
- 주요 내용
 - 한반도의 청동기, 화살, 기마문화, 농경문화 등을 교류한 동북아 국가 (몽골, 바이칼호수 지역 등)와 새로운 글로벌 문화네트워크 개척
 - 문화예술 CD (Contents Developer)에서 CP (Contents Platform)으로 변신

■ 사업내용

- 경주엑스포공원은 전체 부지 27,078m²로 엑스포문화센터, 경주타워, 첨성대영상관, 백결공연장, 처용의 집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1990년대 말에서 2015년까지 시간을 두고 조성됨



< 엑스포문화센터 (2007년 조성) >



< 경주타워 (2007년 조성) >

- 엑스포공원에서는 2008년, 2010년, 2003년, 2007년, 2011년, 2014년, 2015년에 세계문화엑스포행사가 개최되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엑스포로 성장해 옴

➡ 경주엑스포 행사 주요 연혁

년도	명칭	기간	장소
1998년	새천년의 미소	9. 10 ~ 11. 10	경주엑스포공원
2000년	새천년의 숨결	9. 11 ~ 11. 10	경주엑스포공원
2003년	천마의 꿈	8. 13	경주엑스포공원
2006년	앙코르-경주엑스포	11. 21 ~ (2007) 1. 9	캄보디아
2007년	천년의 빛, 천년의 창	9. 7 ~ 11. 5	경주엑스포공원
2011년	천년의 이야기	8. 12 ~ 10. 10	경주엑스포공원
2013년	이스탄불-경주엑스포	8. 31 ~ 9. 22	터키
2014년	이스탄불 in 경주엑스포	9. 12 ~ 9. 22	경주엑스포공원
2015년	실�크로드 경주 2015	8.21 ~ 10. 18	경주엑스포공원
2017년	호찌민-경주엑스포	11. 11 ~ 12. 3	베트남

- 경주엑스포공원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시대에 맞는 변신을 요구받고 있음
- 특히 세계적인 흐름인 4차혁명시대를 맞아 경주엑스포의 당면과제는 인간의 고유한 감성과 영감, 창의력을 자극하고 인간회복의 장으로서의 역할 변화를 요구받고 있음
- 첫째는 경주엑스포공원 만의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고 그동안 엑스포를 개최하지 않은 극동 지역이나 중동, 아프리카 등과의 문화 네트워크 구축임
 - 한반도의 철기, 청동기, 화살, 기마문화, 농경문화 등을 교류한 동북아 국가(몽골, 연해주 지역 등)와 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
- 둘째로 그동안 엑스포공원이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한 다음 이를 방문객에게 제공해 주는 CD (Contents Developer)의 역할을 해왔다고 한다면 AI가 문화예술 콘텐츠 저작권능을 소유하는 시대에는 CP (Contents Provider) 역할로의 변신이 바람직함
 - AI가 흉내 낼 수 없는 전통예술, 전통음식 등 인간 고유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펼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오픈형 플랫폼의 역할로 변신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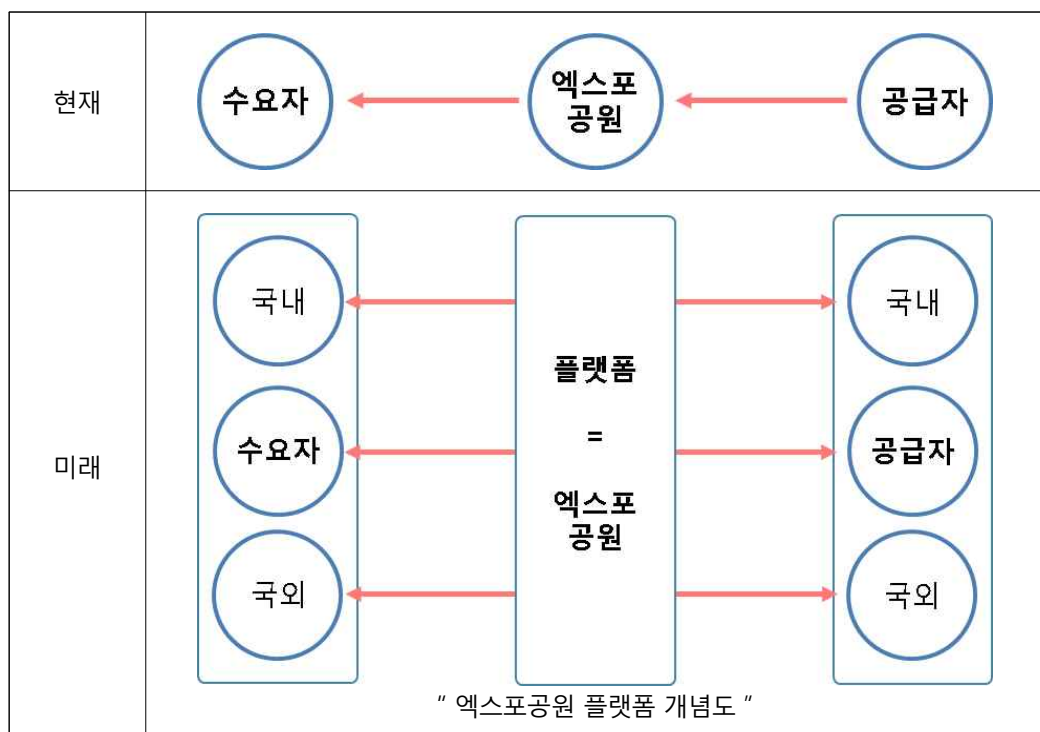


< 경주와 글로벌 문화네트워크 구축 루트 >

➡ 카자흐스탄, 몽고의 문화네트워크 구축 타당성

구분	주요 내용
카자흐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 : 아스타나 · 위치 :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에 위치 · 인구 : 1800만명 (2017년 기준) · 면적 : 약 272만 5천km², 한반도의 12배 · 인종 : 몽골계, 터키계, 슬라브계 혼합 ·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크로드 초원길의 경유지 - 투르크-이슬람 문화를 포괄하는 유목문화권 - 한민족 이동경로인 바이칼호수 부근 입지 - 같은 알타이 문화권 배경
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 : 울란바토르 · 위치 :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 · 인구 : 303만명 (2016년 기준) · 면적 : 1,566천km², 한반도의 7배 · 인종 : 몽골계, 카자흐계 ·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크로드의 최대 보호국이자 경유지 - 한민족과 동일한 DNA - 같은 알타이 문화권 배경

- 최근 세계적으로 문화예술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음
- 이는 세계가 온라인(가령, Facebook)을 기반으로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 하나의 온라인 공동체로 묶여지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임 ⁷⁾
- 먼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생산활동이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졌고, 실내공간은 야간이나 농한기 이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은 철저히 단절된 공간이었으며,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나의 공간”과 “나의 것이 아닌 공간”은 더욱 철저히 분리되기에 이름
- 오늘날 온라인 커뮤니티의 발달과 장차 도래할 4차혁명 시대에는 이러한 공간의 개념이 희미해지고 공간이 해체되는 시대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의 한계를 접목한 지역 기반형 플랫폼 구축이 장소를, 지역을, 마을을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엑스포공원은 다가올 4차혁명을 대비하는 개방형 공간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오프라인 공간이 아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융복합되는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예측됨



7) 윤주선(2016).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3.8 호찌민-경북 교통 접근성 개선

■ 필요성

- 국제 문화교류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통 접근성 개선이 매우 중요
- 경북과 베트남은 인천공항을 통해 접근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최대 장벽

■ 사업개요

- 추진시기 : 중장기
- 추진주체 : 경상북도, 민간
- 주요 내용
 - 경북 인근 공항을 이용해 베트남과 교류할 수 있는 항공 접근성 개선
 - 포항 등 마arina 시설을 활용해 크루즈 접근성 개선

■ 사업내용

- 현재 경북과 호찌민 직항노선이 없고 인천공항이나 부산공항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 가중



- 대구공항은 유효공간이 포화되어 더 이상 항공노선 증설이 어렵고 군사공항과 겸사용을 하는 등의 한계가 있음
- 향후 대구공항이 의성, 군위 등 경북 지역으로 이전을 할 경우 경북과 베트남(호찌민) 직항로 개설이 매우 필요함
- 항공기 외에 향후 동아시아에서 지속 성장이 전망되는 해양 크루즈 산업도 대비가 필요함
- 아시아 크루즈 시장은 크게 동남아 코스와 동북아 코스로 나뉘는데, 상해를 모항으로 중국-한국-일본 3국을 포함하는 한중일 코스와 싱가포르를 모항으로 말레이시아-태국을 기항하는 동남아시아 코스, 홍콩에서 베트남을 거쳐서 오는 코스가 대표적임
- 따라서 현재 호찌민은 모항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부산항과 연결되는 크루즈가 신규 도입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음
- 이 경우 부산항에 정박한 다음 경주나 포항을 관광할 수 있는 연계 서비스 구축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 베트남간 크루즈 루트 (안) >

3.9 경북 국제교류센터 설립

■ 필요성

-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마인드 제고, 교류 활성화 중재 및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기구가 필요
- 행정 공무원 위주의 국제교류 추진도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된 국제교류센터 구축 및 운영 바람직

■ 사업개요

- 추진시기 : 중장기
- 추진주체 : 경상북도
- 주요 내용
 - 경북내 국제 문화교류를 전담하는 기구 설치
 - 도민의 국제교류 마인드 및 역량 교육, 국제 문화교류 활성화 등 추진

■ 사업내용

- 2000년대 들어와 광역 시도 단위의 국제교류센터 설치가 하나의 트렌드임
- 부산시의 경우 국제교류재단을 2005년에 설치하여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부산국제교류재단은 국제 문화교류와 관련하여 민간 국제교류 지원 사업을 전담 실시
 - 부산을 자매도시로 좀 더 소개하고자 자매도시가 주최하는 국제행사 및 교류 행사에 참여 및 홍보 (후쿠오카 아시아태평양페스티벌 등)
 - 마지막으로 매년 외국인과 함께 각국의 음식·문화·전통 등을 교류하고 체험하는 축제를 개최

➡ 지자체 국제교류센터 설립 현황

구분	설립년도	위치	역할	비고
부산	2005년	연제구	· 민간 국제교류 지원 · 우호협력도시 교류 강화	재단
대구	2012년	중구	· 시민의식 함양 · 국제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 · 외국인 생활 편의 지원	진흥원
광주	1999년	동구	· 생활 상담 · 한국어 교실 · 유학생 지원	
대전	2005년	동구	· 우호협력도시 교류 강화 · 시민의 국제교류 유도 · 국제교류 중개 확대	
수원	2011년	팔달구	· 국제교류를 위한 시민 교육 · 시민 주도 국제교류 지원 · 주요 도시 네트워크 구축 · 민관학협의회 구성	

- 현재 경북에는 국제교류를 전담하는 기구가 전무한 실정으로 베트남을 포함하여 자매도시와의 국제 문화교류 활성화를 담당하는 기구 설치

➡ 가칭 “경북 국제교류센터” 설립 방안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설치위치	· 포항, 경주 등 희망 도시 중 선정	
기구 성격	· 공공 및 민간의 장점 혼합	재단
담당역할 (예시)	· 경제교류 : 경제교류협정체결, 투자설명회, 관광전 개최, 직항로 개설 등 · 문화교류 : 지역축제 참가, 합창단 등 공연, 사진전 개최, 문학교류, 전시회, MICE 등 · 체육교류 : 스포츠 교류단 파견, 친선 스포츠 경기 등 · 인적교류 : 교환근무, 시찰 및 조사단, 학생교류 등 · 상징사업 : 공원 조성, 거리 명명식, 자매도시전시관 개관, 명예시민증 수여 등 · 기타교류 : 명예박사학위 수여, 위난 원조, 의료봉사활동, 동물교환 등 · 의식교육 : 공무원, 주민 대상으로 국제 문화교류 마인드 및 역량 교육	

3.10 주민 참가 확대

■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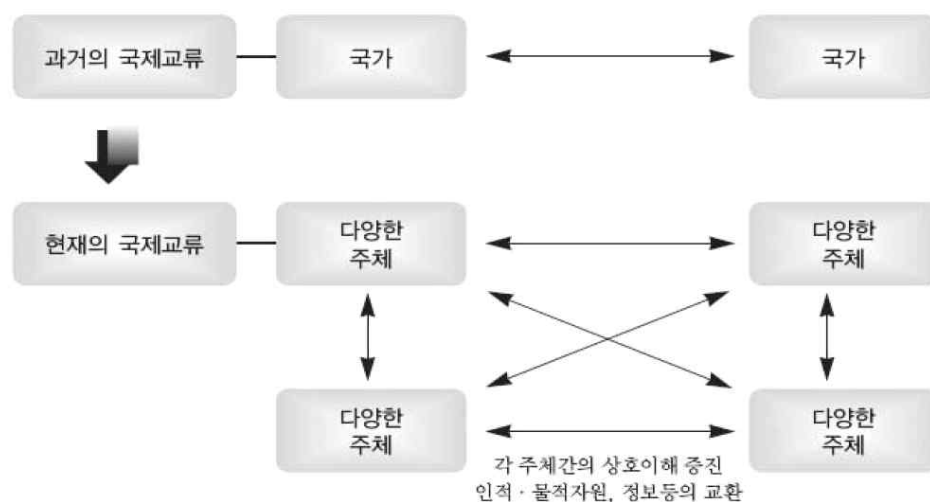
- 국제 문화교류는 관의 주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활성화될 수 있음
- 특히 국제문화교류 방법이 일방향 → 양자간 → 다자간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에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사업개요

- 추진시기 : 단기
- 추진주체 : 경상북도, 시군, 민간
- 주요 내용
 - 국제 문화교류사업에 대한 주민 대상 홍보 강화 (언론, SNS 등)
 - 주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범위 확대 (마일리지제도 등 도입)

■ 사업내용

- 과거와 달리 국제교류협력은 교류 주체가 국가 위주에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국제기구·기업·민간단체, 주민 등 개별적이고 다양한 주체로 이동하고 있음



자료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2008), 이정석 외(2009) 재인용

- 국제 문화교류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자기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교류를 통해 학습하고 전수하는 과정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서 시작됨
- 그런 점에서 국제 문화교류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유발시키면서 기업 등 메세나 방식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언론 홍보, 주민 참여 폭 확대가 필요함
- 먼저, 입소문을 타고 관람객의 방문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으나, 유튜브나 SNS 등에 올라와 있는 실제 문화교류 행사의 활동상들도 흥미를 유발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또한, 신문사 등 언론사의 특집기사들도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참여를 확대하는 데 좋은 정보 제공 방법임
- 경주엑스포 행사를 맞아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함
- 가령, 행사 기간 전세계에서 오는 문화 사절단, 공연단,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숙박을 제공해주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마일리지 제도 : 홈스테이를 개방하면 그 기간에 맞게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추후 경북 농산물 구입 쿠폰으로 돌려받는 제도

➡ 가칭 “경북 국제교류 마일리지 제도” 운영 방안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유형 1	· 홈스테이를 개방하면 그 기간에 맞게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추후 경북 농산물 구입 쿠폰으로 돌려받는 제도	
유형 2	·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이 함께 경북내 관광지에서 휴가를 같이 보내는 경우 마일리지 적립 후 인센티브 제공	
유형 3	· 다문화 가정의 이주여성이 친정부모를 초청할 경우 여행 안내 도우미 역할을 수행한 경우 마일리지 적립	

제4장 부록

1. 조사 설문지
2. 참고문헌

1. 조사 설문지

1.1 한국인용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베트남과 한국(경북) 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은 통계 목적으로만 이용되오니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30일 ~ 12월 4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 대구대학교

1. 귀하는 금번 엑스포에 **참가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② 엑스포 행사에 대한 관심 ③ 한국(경북, 경주)에 대한 관심
④ 한국(경북, 경주)의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⑤ 내가 좋아하는 가수, 연예인을 보려고
⑥ 처음 보는 행사이기에 ⑦ 우연히 ⑧ 기타

2. 다음은 본 **엑스포의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하는 부분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한국(경북)의 문화를 베트남에 소개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한국(경북)의 관광자원을 베트남에 소개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베트남 - 한국(경북) 양국 간 문화 교류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베트남 - 한국(경북) 양국 간 관광 교류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3. 귀하는 현재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교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해당하는 부분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현재 베트남과 한국은 문화교류가 매우 활발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4. 엑스포 이후 베트남과 한국간 문화교류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 항목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하는 부분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8년 호찌민 in 경주 엑스포 행사 개최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양국 문화예술 작가들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양국간 유학생 확대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양국간 자매결연 체결 확대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양국간 가수, 연예인 상호 방문 공연 확대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양국 경제인 기업가 상호 교류 확대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양국 관광객 간 상호 방문 확대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다양한 학술세미나를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베트남-한국 상호 교류의 해』 지정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5. 귀하는 베트남과 한국간 문화교류 활성화 이전에 먼저 이루어져야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6. 귀하는 베트남과 한국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역점을 두어야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7. 다음은 인구통계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 표시해 주세요.

성별 : ①남성 ②여성	연령 : ①10대 ②20대 ③30대 ④40대 ⑤50대 ⑥60대 ⑦70대이상
직업 : ①농·림·축·수산업 ②회사원 ③공무원 ④자영업 ⑤학생 ⑥주부 ⑦연구/전문직 ⑧서비스직 ⑨판매직 ⑩무직 ⑪기타	

* 귀한 시간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2 베트남인용

Thân chào các bạn! Phiếu khảo sát này được tiến hành nhằm mục đích thúc đẩy giao lưu văn hóa giữa Việt Nam và Hàn Quốc (Gyeongbuk). Thông tin bạn cung cấp chỉ mang mục đích thống kê, rất mong nhận được những ý kiến chân thành nhất.

30/11 - 04/12/2017

HÀN QUỐC - TỈNH GYEONGBUK/TRƯỜNG ĐẠI HỌC DEAGU

1. Lý do bạn tham dự Triển lãm lần này? (lựa chọn **1** đáp án)

- ① Liên quan đến công việc ② Quan tâm đến Triển lãm
 ③ Quan tâm đến Hàn Quốc (Gyeongbuk, Gyeongju)
 ④ Trải nghiệm văn hóa Hàn Quốc (Gyeongbuk, Gyeongju)
 ⑤ Đến xem các ca sỹ, nghệ sỹ yêu thích ⑥ Đây là sự kiện đầu tiên tham gia
 ⑦ Tình cờ biết đến ⑧ Lý do khác ()

2. Sau đây là những câu hỏi về **vai trò của Triển lãm**. Bạn vui lòng đánh dấu ✓ vào ô thích hợp nhất với ý kiến của bạn.

	Hoàn toàn phản đối	Rất phản đối	Phần nào phản đối	Không ý kiến	Phần nào đồng ý	Rất đồng ý	Hoàn toàn đồng ý						
Giới thiệu văn hóa Hàn Quốc (Gyeongbuk) đến Việt Nam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Giới thiệu tài nguyên Du lịch Hàn Quốc (Gyeongbuk) tới Việt Nam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Giao lưu văn hóa Việt Nam - Hàn Quốc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Trao đổi Du lịch Việt Nam - Hàn Quốc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3. Vui lòng đánh dấu ✓ vào ô thích hợp nhất với ý kiến của bạn về mức độ giao lưu văn hóa giữa Việt Nam và Hàn Quốc.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Hiện nay, trao đổi văn hóa giữa Việt Nam - Hàn Quốc rất sôi động"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4. Câu hỏi đặt ra nhằm **tăng cường giao lưu văn hóa giữa Việt Nam - Hàn Quốc sau Triển lãm**. Bạn vui lòng đánh dấu ✓ vào ô thích hợp nhất với ý kiến của bạn.

	Hoàn toàn phản đối	Rất phản đối	Phản nào phản đối	Không ý kiến	Phản nào đồng ý	Rất đồng ý	Hoàn toàn đồng ý
Tổ chức Triển lãm Gyeongju tại Hồ Chí Minh năm 2018	①	②	③	④	⑤	⑥	⑦
Tăng cường giao lưu văn hóa nghệ thuật giữa hai nước	①	②	③	④	⑤	⑥	⑦
Tăng cường trao đổi sinh viên giữa hai nước	①	②	③	④	⑤	⑥	⑦
Tăng cường kết nghĩa giữa hai nước	①	②	③	④	⑤	⑥	⑦
Tăng cường các buổi biểu diễn giữa ca sỹ, nghệ sỹ hai nước	①	②	③	④	⑤	⑥	⑦
Tăng cường giao lưu giữa các doanh nhân, doanh nghiệp hai nước	①	②	③	④	⑤	⑥	⑦
Tăng cường giao lưu du lịch giữa hai nước	①	②	③	④	⑤	⑥	⑦
Tổ chức hội thảo thảo khoa học luân phiên giữa hai nước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hỉ định 『Năm giao lưu Việt Nam - Hàn Quốc』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Nếu bạn có ý kiến để thúc đẩy giao lưu văn hóa Việt Nam - Hàn Quốc, vui lòng viết ý kiến bên dưới:

6. Nếu bạn muốn nhấn mạnh việc thúc đẩy giao lưu văn hóa Việt Nam - Hàn Quốc, vui lòng viết ý kiến bên dưới:

7. Thông tin cá nhân. Vui lòng đánh dấu ✓ vào ô thích hợp

Giới tính : <input type="checkbox"/> Nam <input type="checkbox"/> Nữ	Tuổi : <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checkbox"/> 20 <input type="checkbox"/> 30 <input type="checkbox"/> 40 <input type="checkbox"/> 50 <input type="checkbox"/> 60 <input type="checkbox"/> 70 hoặc trên
Nghề nghiệp : <input type="checkbox"/> Nông, lâm, ngư nghiệp <input type="checkbox"/> Chủ doanh nghiệp <input type="checkbox"/> Nghiên cứu/chuyên viên <input type="checkbox"/> Thất nghiệp	<input type="checkbox"/> Văn phòng <input type="checkbox"/> Công chức <input type="checkbox"/> Học sinh, sinh viên <input type="checkbox"/> Nội trợ <input type="checkbox"/> Dịch vụ <input type="checkbox"/> Bán hàng <input type="checkbox"/> Khác

* Chân thành cảm ơn những ý kiến đóng góp của bạn *

2. 참고문헌

- 경상북도(2017). 호찌민-경주엑스포2017 결과보고.
- 김상태·정광민(2015). 지역자원을 활용한 예술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진욱(2013). 다문화 지원사업과 한-베트남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국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
- 김판석(2000).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발전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2권 제4호.
- 문화체육관광부(2017). 국제문화교류 실태 시범조사.
- 서인화(2010). 한국과 베트남 문화교류의 흐름에서 본 양국 전통음악 교류의 현황과 특성. 민족문화논총 46.
- 양건열(2015). 유라시아 지역 내 문화예술 교류 콘텐츠 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정석 외(2009). 경남도와 한일해협 연안 현(縣) 간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 이정석(2011). 국제교류에 의한 지역활성화 방안. 한국행정논집 제24권 제1호.
- 이정석(2014). 자매도시 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海峡圈研究.
- 이종수(2011). 한국과 베트남의 음식문화 비교 연구.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4(2).
- 전북발전연구원(2014). 전북을 대표하는 상징문화공간 조성방안.
- 정정숙(2012).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최승국·김선영(2012). 한-베트남 관광교류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연구 제16권 제2호(통권 제51호).
- 현대경제연구원(2013). 한국·베트남 신뢰 회복의 성공 요인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